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5
에스라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에 스 라

Ezra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1:3)

מִי־בָכֶם מְכֹל־עַמּוֹ יְהִי אֱלֹהֵיו עִמּוֹ וַיַּעַל לִירוּשָׁלַם אֲשֶׁר בְּיְהוּדָה
וַיְבִן אֶת־בַּיִת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הוּא הָאֱלֹהִים אֲשֶׁר בִּירוּשָׁלַם :

에스라 차례

에스라 서론	〈17제〉	9
제 1 장 여호와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다	〈22제〉	14
제 2 장 돌아온 자들이 본성(本城)에 거하다	〈20제〉	20
제 3 장 성전 재건(再建)을 시작하다	〈19제〉	26
제 4 장 성전 공사가 중단되다	〈22제〉	32
제 5 장 성전 건축이 재개(再開)되다	〈17제〉	38
제 6 장 성전 건축이 필역(畢役)되다	〈23제〉	45
제 7 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	〈18제〉	52
제 8 장 예루살렘에 귀환한 무리들	〈23제〉	59
제 9 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다	〈13제〉	66
제 10 장 개혁(改革)이 진행되다	〈19제〉	73

에스라 특별 자료 차례

에스라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13
제 1 장 〈화보 자료〉 금으로 만든 잔(杯)	19
제 2 장 〈화보 자료〉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25
제 3 장 〈화보 자료〉 하늘 위의 예루살렘	31
제 5 장 〈본장의 요절〉	42
제 5 장 〈연구 자료〉 예배 처소의 변천	43
제 6 장 〈연구 자료〉 제 2차 성전 건축 과정	51
제 7 장 〈본장의 요절〉	57
제 7 장 〈연구 자료〉 소금	58
제 8 장 〈본장의 요절〉	65
제 9 장 〈화보 자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70
제 9 장 〈연구 자료〉 구약에 나타난 신앙 회복 운동	71
제 10 장 〈연구 자료〉 페르시아(Persia)	79

에스라 서론

1.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본서와 느헤미야서와의 내용상 긴밀한 관계 때문에 두 권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였다.
- (2) 그러나 70인역(LXX)에서는 본서를 한 권의 책으로 독립시켜 '에스드라스'로 칭하였고 마찬가지로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도 '에스라'로 칭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 (3) 이러한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인 동시에 중심 인물로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재건에 매진하는(7-10장)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學士)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에는 저자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문장도 1인칭 또는 3인칭 주어의 관점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명확히 저자를 밝힐 수 없으나 전통적 견해를 따라 '에스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왜냐하면 문장 주어의 인칭이 바뀐 사실은 고대 바벨론 문서들도 본서와 유사한 화법(話法)과 문장 형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에스라 저작설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못되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에스라가 자신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7:6)라고 부르는 것 등이 에스라의 저자성에 약간 부자연한 감이 있으나 이러한 묘사는 역사 문헌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에스라의 지식과 그 심오한 사상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에스라의 저자성을 드러낸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저자가 에스라임을 인정할 때 기록 연대도 추정될 수 있다.
- (2) 본서에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귀절은 7:8인데 이것에 따르면 에스라는 바사 아닥사스다 1세(B.C. 464-424) 때 귀국하여(재위 7년) 8-10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 (3) 또한 10:6에 따르면 에스라가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갔다는 귀절이 있는데 엘리아십은 대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참조, 느 3:1, 20).
- (4) 그러므로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느헤미야가 바사 왕실로부터 귀국한 B.C. 444년 이후로 추정되는데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까지 생존하였으므로(참조, 느 8:1-9; 12:36) 에스라가 그의 생애 말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4.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6장은 바사의 고레스 왕(B.C. 538-530)이 다스리던 2,3년 사이 그리고 다리우스 1세(B.C. 522-485) 재위 6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2) 또한 후반부 4장(4:7-23도 포함)은 아닥사스다 1세(B.C. 464-424)의 재위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 (3) 이와 같이 에스라서는 바사를 다스리던 아카메이드 왕조(王朝)의 전성기 80년간의 역사

10 에스라 서론

를 그 배경으로 한다.

(4) 또한 본서는 이러한 바사 왕들의 치세 기간에 벌어진 유다 포로민들의 1차 귀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및 봉헌식, 2차 귀환 등 포로 후기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다룬다.

5. ㉠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 (1) 에스라는 요사다의 아들로 아론 제보에 속한(참조, 7:1-5; 대상 6:3-15) 제사장이었다.
- (2) 그리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학사(學士)로서(7:6) 제 2차 포로 귀환 때 약 1,750명 가량의 남자를 인솔해 왔는데 이때 남·녀 모두를 합치면 5,000명은 되었다.
- (3) 이러한 에스라의 정치적 직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처럼 총독은 아니었지만 아닥사스다 1세에게서 재무(財務)에 관한 특권과 관리를 임명할 권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바사 궁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7:21-26).
- (4) 한편 에스라의 신앙은 돌아오는 무리의 보호를 위한 바사 왕의 군사적 호의조차 거절한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8:22).
- (5) 또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율법을 가르치며 회개 운동을 주도하였다(참조, 9:1-10:17; 느 8:1-8).

6. ㉠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에 수록된 사실과 기록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 (2)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흥과 보존에 대해 증거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의 귀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율법에 따른 제사 부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금지 등의 큰 사실을 기록하였다.
- (3) 이러한 사실들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主)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경영(經營)하시는 목적과 그 과정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된다.

7. ㉠ 본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본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 이전의 사실을 기록한 전반부와 에스라 이후의 사실을 기록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 (2) 여기서 전반부는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勅令)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했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허락했다.
- (3) 그 후 귀향하는 이들의 명단과 제단의 건축, 제사의 부활 그리고 성전의 기초 조성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 (4)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여 유대인들은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의 봉헌식을 엄숙하게 행하며 유월절을 지켰다.
- (5) 이러한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7-10장)에는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 재위 7년에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과 그가 예루살렘에서 열정적으로 백성들 중의 이방 결혼을 금지하고 이방 여인들을 배척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 (6) 이렇게 하여 에스라서는 이방 부인과 헤어져야만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록을 기록함으로 끝을 맺는다(10:18-44).

8. ㉠ 본서가 말하는 주요 사상(思想)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풍습에 젖어서는 안 되고 다만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2) 그러므로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가르쳤다(참조, 느 8:1-

8). 그리고 언약의 백성답게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에 따라 살며 이방인들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다.

(3)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意識)과 사명(使命)을 일깨워 준다.

9. **㉠ 유다인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복구에 대해 일람표(一覽表)를 작성해 보라.**

㉠

연 대	바 사 왕	유다의 지도자	사 건	성 경
B. C. 586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시드기야	예루살렘 함락	왕하 25:6-12 ; 렘 25:9-11
538-537	고 레 스	스룹바벨, 예수아	유다인 귀환 허락 조서, 제 1차 귀환	1:1-2:67; 대하 36:22,23
536	고 레 스	스룹바벨, 예수아	예루살렘 성전 기초 공사	3:8-13
522	다 리 오	스룹바벨, 예수아, 학개, 스가랴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 성전 재건	6:1-12
516	다 리 오	스룹바벨, 예수아, 학개, 스가랴	예루살렘 성전 완공 및 봉헌식	6:15-18
457	아닥사스다 1세	에스라	유다인들의 제 2차 귀환	7:1-8:36
444	아닥사스다 1세	느헤미야	유다인들의 제 3차 귀환 예루살렘 성벽 건축	1:1-2:20; 6:15

10. **㉠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는 달리 포로로부터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1) 앗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앗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이동시켰고(참조, 왕하 17:5)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이방 민족(참조, 왕하 17:24)을 이스라엘과 혼합되게 하여 새로운 '사마리아족'을 형성시켰다.

(3)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생존한 왕족이 없었고 이미 종교적으로도 여호와의 섬기는 데 많이 혼란해져 있었다. 더우기 앗시리아 포로 생활 중에서 백성들의 종교와 문화에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만한 지도자와 종교의 중심점이 없었다.

(4)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고대 중동(中東)에서 명멸(明滅)했던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집안의 잊혀진 열 지파'로 사라져 갔다.

11. **㉠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고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1) 유다는 똑같이 포로 생활을 경험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상황이 달랐다.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였지만(B.C. 586) 피정복 민족에 대한 정책이 매우 관대했기 때문이다.

(2) 그리하여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다인들은 공동 사회(共同社會)를 이루어 살면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민족과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통(王統)을 이은 다윗의 자손과 함께 동행하므로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참조, 왕하 25:27).

(4) 또한 다윗의 왕통을 이은 자손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얼마 후 죄수의 자리에서 놓여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이 대우 받으면서 바벨론의 황제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참조, 왕하 25:17-20).

12 에스라 서론

- (5)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그들을 아주 멀리지 않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 그들을 보존 시켰음을 본다(참조, 삼하 7:16; 시 89:3, 4, 28, 29; 132:11, 12).
- (6)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택한 백성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그의 손길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하겠다.

12. ㉠ 유대인들은 몇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 ㉠ (1) 유대인들은 4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 (2) 첫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 계급이었고(참조, 단 1:1-6), 두 번째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과 모든 방백들과 군사들 1만 명 외에 많은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왕하 24:14).
- (3) 세번째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이 최후로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었다(참조, 왕하 25:6-12; 렘 25:9-11).
- (4) 네번째는 B.C. 581년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갔다.

13. ㉠ 나라가 멸망한 후의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 ㉠ (1)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대 본토에 남겨진 백성들은 극히 비천한 자들로 토지를 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은 불과 약 2만 명 정도였다.
- (2)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후 유대의 형편은 각처에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 왔으나(참조, 렘 40:11, 12) 황무해진 시온의 형편은 기아와 수탈로 비참한 무법천하(無法天下)였다(참조, 애 5:1-18).
- (3) 한편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바벨론 정권은 비교적 많은 자유를 허락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종교의 자유도 허락되었다(참조, 렘 29:5-7).
- (4)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한 회당은 이러한 포로 생활 중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제도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고 또 민족의 이산(離散)을 막을 수 있었다.

14. ㉠ 본서와 느헤미야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 (1) 본서와 느헤미야서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참조, 서론 ㉠ 3) 구약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다.
- (2) 자세한 것은 느헤미야 서론 ㉠ 6을 참조하라.

15. ㉠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 ㉠ (1) 두 인물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한 언약의 역사가 계속 되도록 헌신하였다.
- (2)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회 조직을 정비한 행정가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무너진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힘썼다.
- (3) 반면에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는 언약의 율법에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로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16.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스룹바벨이 인도한 제1차 귀국/1:1-6:22
 - ① 고레스의 조서/1:1-11
 - ② 인구 조사/2: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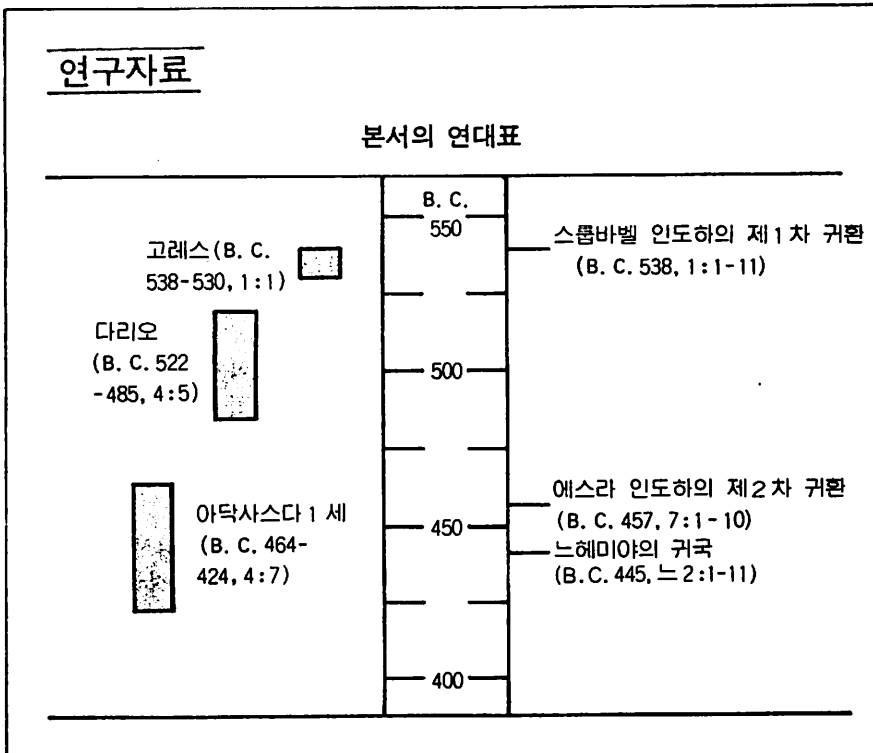
- ③ 성전 재건의 시작/3:1-13
 - ㄱ. 번제의 재개(再開)/3:1-6
 - ㄴ. 성전 지대(地臺)의 기초/3:7-13
- ④ 반대자들/4:1-24
- ⑤ 계속되는 성전 재건/5:1-6:12
 - ㄱ. 선지자의 예언/5:1, 2
 - ㄴ. 닷드내의 상소문/5:3-17
 - ㄷ. 다리오의 조서/6:1-12
- ⑥ 성전의 완공/6:13-22
 - ㄱ. 성전의 완공과 봉헌/6:13-18
 - ㄴ. 유월절/6:19-22

(2) 에스라가 인도한 제2차 귀국/7:1-10:44

- ① 예루살렘으로의 귀향/7:1-8:36
 - ㄱ. 지도자 에스라/7:1-10
 - ㄴ. 아닥사스다의 조서/7:11-28
 - ㄷ. 여행의 과정/8:1-36
- ② 예루살렘에서의 부흥 운동/9:1-10:44

17.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1:3).



제 1 장 여호와와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다

단락구분 1-4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詔書) / 5-6 유대인들의 귀환 결심과 주변 사람들의 혐조 / 7-11 고레스가 성전 기명(器皿)들을 돌려 주다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 받

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코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7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8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맡이니

9 그 수효는 금반이 삼십이요 은반이 일천이요 칼이 이십 구요

10 금대접이 삼십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사백 열이요 기타 기명이 일천이니

11 금, 은 기명의 도합이 오천 사백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서의 서론 격인 본장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
 (2) 즉 본장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동기와 역사적 배경을 보여 준다.
 (3) 그 회복은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殿)을 지을 것과 이것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 준비물로 도와 줄 것을 명하는 조서(詔書)로부터 시작되었다.
 (4) 이와 같은 고레스의 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즉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된 말씀(참조, 렘 25:12, 13; 29:10)의 성취였다.
 (5) 이리하여 본장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을 다스리시되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제왕과 세속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6)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啓示)를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2. ㉠ 바사 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詔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4절)

- ㉠ (1) 그것은 바사 왕 고레스가 그의 통치(統治) 원년(元年)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자신에게 명했음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

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였다.

- (2) 그런데 본서의 저자가 서두에 이 조서(詔書)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유다인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등 일련의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 역사(歷史) 전체가 언약 백성을 위해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經營下)에서 진행된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3) 물론 이런 사건을 역사상에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도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인들은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임을 밝히 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3. **㉠** 고레스(Cyrus)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1절)

- ㉠** (1) 고레스는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B.C. 558-529)으로 메대 왕 아스타게스(Astages)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안샴(Ansham) 왕국에서 B.C. 598년경 출생하였다.
- (2) 그런데 그는 메대와 바벨론을 물리치고 B.C. 539년 바벨론 전역을 정복함으로써 당시 바사를 최대 제국으로 만들었다.
- (3) 이러한 고레스 왕은 피지배국에 대해서 관대한 종교 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종교를 크게 장려하였다.

4. **㉠** '고레스'(Cyrus) 왕의 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 말씀이 있는가? (1절)

- ㉠** (1)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포로들의 해방에 대하여 말할 때 '고레스'란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참조, 사 22:28; 45:1).
- (2) 그러므로 '고레스' 왕의 출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여자적(如字的) 응답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비록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成就)할 자'라고 했지만(참조, 사 44:28) 이사야서 후반부에 많이 애용된 '나의 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 (4) 그러므로 '고레스'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목자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소명 의식(召命意識)을 가지고 불의한 고난을 참으며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 고레스 왕이 조서(詔書)를 내린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고레스 왕의 조서(詔書)는 바사 왕 고레스 원년(元年)에 내려졌다.
- (2) 그런데 여기서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즉위한 해인 B.C. 558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까지 통치하기 시작한 해인 B.C. 538년을 가리킨다.
- (3) 즉 이때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고레스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해에 바로 고레스는 유다인들의 해방을 선포하였다.

6. **㉠**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가 그 벌로써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있겠으며 그때 유다의 온 땅은 황폐하리라 말씀하셨다(참조, 렘 25:11).
- (2)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다 자손을 권고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고도 하셨다(참조, 렘 29:10).
- (3) 이러한 말씀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震怒)가 임하던 중에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을 밝히 보여 준다.
- (4)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7. **㉠** 본서의 저자는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는가? (1절)

- ㉠** (1) 저자는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2) 이렇게 저자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건이 비록 바사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의 손길을 늘 깨달아야 한다.

8. **㉠**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詔書)가 성경의 한 부분을 이루는 사실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고레스의 조서(詔書)는 당시 바사 제국의 온 나라에 공포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2) 그런데 이러한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큰 의미를 주고 있다.
 (3) 여기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①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과 ②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인간의 관념 속에서 꾸며낸 이야기나 훈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9. **㉠** 고레스는 당시 대제국의 황제로서 세상 만국을 어떻게 얻었다고 하였는가? (2절)

- ㉠** (1) 고레스는 당시 대제국의 황제였지만 자기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神)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고 공포하였다.
 (2) 여기서 고레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으며 그분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품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신으로 숭앙했음이 분명하다.
 (3) 그런데 그가 메대 사람 다리오(참조, 단 5:30)의 사위였고 그 다리오에 의해 다니엘이 120명 방백 위에 위치한 세 총리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참조, 단 6:1), 고레스는 이 다니엘을 통해 유다의 하나님과 고레스 자신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4) 이렇게 놓고 볼 때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10. **㉠**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에게 명한 바는 무엇이었는가? (2절)

- ㉠** (1)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하셨다고 말했다.
 (2)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참조, 사 44:28).
 (3)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세계 열강의 세력이 그 성취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1. **㉠**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였는가? (3절)

- ㉠** (1)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했다.
 (2)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神)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즉 당시 바사의 종교 정책은 각 나라에 대해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었다.
 (3) 그리하여 고레스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다.
 (4)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비록 계시(啓示)

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자기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12. **㉠**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누구인가? (3절)

- ㉠** (1)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다.
 (2) 본서의 저자는 고레스의 조서를 특히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돕더라도 그 일을 실제로 해야 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4)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13. **㉠** '그 남아 있는 백성' 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 ㉠** (1)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말한다.
 (2) 그러나 이런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는 않았고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던 자들도 많이 있었다.
 (3) 하나님께서는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표명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솔히 여기고 말했다.
 (4) 오늘날도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에 주의해야겠다(참조, 고전 1:18; 고후 6:1, 2).

14. **㉠** '그곳 사람들' 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남은 자들이 거하는 모든 곳의 원주민들을 가리킨다.
 (2)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귀중품과 물질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의 사정과 유사하다(참조, 출 3:21, 22; 11:2, 3; 12:35, 36).
 (3) 이사야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전(前)에 출애굽 사건과 대비하여 예언한 바 있다(참조, 사 11:16).
 (4) 그래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제 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역사(役事)였다.
 (5)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 수 있다.

15. **㉠** 고레스의 조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자들은 누구였는가? (5절)

- ㉠** (1) 그들은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다.
 (2) 이상적(理想的)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려는 자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가 비록 소수 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

16. **㉠**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허락하고 명령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1-5절)

- ㉠** (1)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열심이 있어도 성취되지 않는다.
 (3)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다.

18 에스라 1 장

- (4) 여기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즉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한 그 뜻을 좇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참조, 시37:7).
- (5) 그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가 왔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17. ㉠ 이스라엘 자손의 남은 자들 주위에 사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

- ㉠ (1) 그들은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돕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릴 예물을 즐거이 주었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할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단지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8. ㉠ 고레스 왕이 귀환하는 유다인들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7-11절)

- ㉠ (1) 고레스 왕은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참조, 왕하 24:13; 대하 36:7) 여호와의 전 기명(器皿)을 창고에서 꺼내서 유다인들에게 돌려 보냈다.
- (2) 그 상세한 목록을 살펴보면 금반(金盤)이 삼십, 은반(銀盤)이 일천, 칼이 이십구, 금대접이 삼십,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기타 기명이 일천 등 모두 5,400개였다.
- (3)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쓰이던 귀한 도구들이 한때는 이방인의 손에 약탈을 당했으나 때가 차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게 하셨다.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실 때는 결코 남김이 없이 철저히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때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우신다.
- (5)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구원은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로 온다(참조, 요 1:16).

19. ㉠ 이러한 성전 기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취되었는가? (7절)

- ㉠ (1) 고레스가 꺼내오도록 명한 성전 기명(器皿)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용(祭儀用)으로 사용되었던 그릇과 기구들인데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탈취해 갔다.
- (2) 제 1차는 B.C. 605년의 1차 침공 때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다(참조, 대하 36:5-7; 단 1:2).
- (3) 또 B.C. 598년의 2차 침공시에는 보다 큰 기명들의 금을 벗겨 내어 전리품으로 가져갔고(참조, 왕하 24:10-13), B.C. 586년의 3차 침공 때에는 주로 불을 사용할 때 쓰던 놋 기구들을 가져 갔었다(참조, 왕하 25:13-17; 렘 52:18).
- (4) 이렇게 비록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기구들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 (5)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자는 실망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20. ㉠ 바사 왕 고레스의 고지기는 누구였는가? (8절)

- ㉠ (1) 당시 '고지기'라는 직책은 왕실의 창고 관리를 맡은 재무관에 해당하는 공직(公職)이었는데 바사 왕 고레스의 문지기는 미르드닷이었다.
- (2) 여기서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드닷을 시켜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해다 둔 여호와와의 전 기명들을 꺼내 오도록 한 것이 공식적인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21. ㉠ 당시의 유다 목백(牧伯)은 누구였는가? (8절)

- ㉠ (1) 여기서 목백(牧伯)이란 당시의 지방 관리나 혹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유다 목백은 '세스바살'이라 이름하는 자였다.
- (2) 그런데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갈대아식 이름으로서 5:14, 16에 의하면 귀환한 유대인

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자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다.

(3) 이와 같이 포로민인 유대인으로서 갈대아식의 이름을 가진 경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참조, 단 1:17), 이러한 경우는 그 인물이 바벨론이나 바사의 조정에서 중요한 관직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4) 유대인 사학자였던 요세푸스 (Josephus) 에 의하면 세스바살은 바사의 시위대장이었다 하나 여하튼 고레스는 세스바살을 귀향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성전 기명들을 맡겼다.

22. ㉠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성전 기명을 주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7-11절)

㉠ (1) 성전 기명은 성전 예배와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2)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명령과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해야만 했다.

(3) 즉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 언약의 증거물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의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다.

(4)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 형벌받던 자리에서 놓여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했다.

(5) 여기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화보자료

금으로 만든 잔(杯). 아래의 사진은 그리이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가멤논(Agamemnon)의 잔'이라는 별명이 붙은 금잔인데 아테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예전에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각종 기명들과 함께 바사(Persia)의 보물들을 받은 것은(4-11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물품들을 받았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출 12:36).

제 2 장 돌아온 자들이 본성(本城)에 거하다

단락구분 1-35 돌아온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 36-42 제사장과 레위인들 / 43-58 느디님 사람 및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 / 59-63 혈통 불명(不明)의 백성과 제사장들 / 64-67 돌아온 자들의 총수(總數) / 68-69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물품 / 70 결론

- 1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농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 성에 이른 자
- 2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숫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 3 바로스 자손이 이천 일백 칠십 이명이요
- 4 스바다 자손이 삼백 칠십 이 명이요
- 5 아라 자손이 칠백 칠십 오 명이요
- 6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 팔백 십 이 명이요
- 7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 명이요
- 8 샷두 자손이 구백 사십 오 명이요
- 9 삭개 자손이 칠백 육십 명이요
- 10 바니 자손이 육백 사십 이 명이요
- 11 브배 자손이 육백 이십 삼 명이요
- 12 아스갓 자손이 일천 이백 이십 이 명이요
- 13 아도니간 자손이 육백 육십 이 명이요
- 14 비그왜 자손이 이천 오십 육 명이요
- 15 아딘 자손이 사백 오십 사 명이요
- 16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 팔 명이요
- 17 베새 자손이 삼백 이십 삼 명이요
- 18 요라 자손이 일백 십 이 명이요
- 19 하숨 자손이 이백 이십 삼 명이요
- 20 깁발 자손이 구십 오 명이요
- 21 베들레헴 사람이 일백 이십 삼 명이요
- 22 느도바 사람이 오십 육 명이요
- 23 아나돗 사람이 일백 이십 팔 명이요
- 24 아스마뎃 자손이 사십 이 명이요
- 25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칠백 사십 삼 명이요
- 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육백 이십 일 명이요
- 27 믹마스 사람이 일백 이십 이 명이요
- 28 벤엘과 아이 사람이 이백 이십 삼 명이요
- 29 느보 자손이 오십 이 명이요

- 30 막비스 자손이 일백 오십 육 명이요
- 31 다른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 명이요
- 32 하림 자손이 삼백 이십 명이요
- 33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 이십 오 명이요
- 34 여리고 자손이 삼백 사십 오 명이요
- 35 스나아 자손이 삼천 육백 삼십 명이었던라
- 36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 칠십 삼 명이요
- 37 임멜 자손이 일천 오십 이 명이요
- 38 바스홀 자손이 일천 이백 사십 칠 명이요
- 39 하림 자손이 일천 십 칠 명이었던라
- 4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 사 명이요
- 41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일백 이십 팔 명이요
- 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일백 삼십 구 명이었던라
- 43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바웃 자손과
- 44 게로몬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 45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 46 하갑 자손과 사물래 자손과 하난 자손과
- 47 갓멜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 48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 49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 50 아스나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부실 자손과
- 51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훔 자손과
- 52 바슬뫏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 53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테마 자손과
- 54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던라
- 55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 56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멜 자손과
- 57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 58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

이 삼백 구십 이 명이었더라

59 뿔뿔라와 뿔하르사와 그들과 앓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족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0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육백 오십 이 명이요

61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62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63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돌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4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 삼백 육십 명

이요

65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 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66 말이 칠백 삼십 례이요 노새가 이백 사십 오요

67 약대가 사백 삼십 오요 나귀가 육천 칠백 이십이었더라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기어 드리되

69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육만 일천 다락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일백 벌이었더라

7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내려진 유다인의 귀환명(歸還令)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도(道)에 이른 자들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 (2)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의 통솔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의 본성(本城)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각 계보(系譜)에 따라서 나열하였다.
- (3) 이렇게 돌아온 자들의 계보 나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참조, 렘25:12, 13; 29:10)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 (4) 이러한 성취의 사실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완결된 계시(啓示)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을 가르쳐 준다.

2. ㉠ 본장의 목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70절)

- ㉠ (1) 본장에서 귀환자들의 목록은 먼저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술되고, 다음으로 일반 백성들의 수자가 가계별(家系別)과 도시별로 각각 기록되었다.
- (2)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수자,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부류 사람들의 명단과 수자들이 각각 기록되었다.
- (3)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 계보를 따져 올라갈 수 없는 제사장들의 명단 그 다음에 귀환민들의 총수를 밝혔다.
- (4) 그런데 이러한 명단은 한 번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기 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귀환한 사람들의 총명단(總名單)임이 분명하다.

3. ㉠ 본장의 계보는 느7:6-69에 나오는 계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70절)

- ㉠ (1) 양서(兩書)의 계보는 몇몇 사람의 이름과 수자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다.
- (2) 자세한 것은 느7장 ㉠8을 참조하라.

4. ㉠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道)로 귀환한 자들의 지도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2절)

- ㉠ (1)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 등 11명이었다.
- (2) 그런데 느7:7에 의하면 나하마니(Nahamani) 까지 합해서 12명이었는데 본서에서는 한 명이 생략된 것이다.

- (3) 그러므로 당시 지도자들은 본래 12명으로 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共同体)의 대표자들임을 보여 주고 있다.
- (4) 그리하여 이들이 이끌고 온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표현하였다.
- (5) 여기서도 귀환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동체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임이 분명해진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들로 구성되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2절)**

- ㉠** (1) 스룹바벨(Zerubbabel)은 ‘바벨론의 후에’ 또는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그는 브다야의 아들로서 유다의 왕통(王統)에 속한 인물이다(대상 3:19).
- (2) 한편 그를 세스바살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사 제국의 총독이란 직함을 사용할 때 병용되었다(참조, 1:8, 11; 5:14, 16).
- (3) 이러한 스룹바벨은 그 시대에 다윗의 위(位)를 대표한 자로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참조, 학 2:20-23; 마 1:12, 13; 눅 3:27).

6. **㉠ 예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2절)**

- ㉠** (1)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후기형(後期形)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녔다. 그는 요사닥의 아들이자(참조, 학 1:1),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형된 대제사장 스라야(참조, 왕하 25:18-21)의 손자였다.
- (2) 그는 바벨론에서 제 1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복원하는 일에 전념한 인물이었다.
- (3) 이러한 예수아는 고국으로 귀환한 후 첫번째 대제사장이 되었고 성전 재건 운동에서 앞장을 선 인물이었다(참조, 3:1-9).

7. **㉠ 스룹바벨과 예수아 외의 9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에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이들 9명의 지도자들은 부족장들인 듯하나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 유명한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과는 다른 인물이다(참조, 느 1:1).
- (2) 또한 비그왜, 빌산, 모르드개는 모두 바사식 이름들로서 이 중 모르드개 역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른 인물임을 주의해야 한다.

8. **㉠ 본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식으로 계수되어 있는가? (2-58절)**

- ㉠** (1)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계수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기록한 방식과는 달리 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계수되어 있다(참조, ㉠3).
- (2) 이것은 명단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가문들은 포로 후기 시대에 잘 알려져 있었고,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신분 증명이 되었다.
- (3) 그리고 이와 같이 이들의 이름과 자손의 수자(數字)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들이 유배지인 바벨론에서 경건한 봉사자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9. **㉠ 21-35절 사이에 나오는 지명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방들은 어떤 곳이었는가?**

- ㉠** (1) 여기에는 21개 지방의 지명을 사용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계수하였는데 그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은 ‘아나돗’(23절), ‘아스마뿔’(24절),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롯’(25절), ‘라마와 게바’(26절), ‘믹마스’(27절), ‘벨엘’(28절), ‘느보’(29절), ‘로드와 하딧과 여리고’(33, 34절) 등 13개 지역이었다.
- (2) 사사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소수 지파에 지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삿 20, 21장)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거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그로 인해 포로 이전보다 그들이 남왕국 유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참조, 고전 1:27).

10. **㉠** 돌아온 제사장들의 자손 중 바스홀 자손은 몇 명이나 되었는가? (38절)

- ㉠** (1) 바스홀 자손 중 예루살렘과 유다 도(道)로 돌아온 자들은 1,247명이었다.
 (2) 그런데 바스홀은 한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학대한 적이 있다(참조, 렘 20:1-6).
 (3) 그러나 바스홀의 자손들은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들이었으며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
 (4) 사실 인간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5)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 주신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자랑치 말고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자.

11. **㉠**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의 총수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36-39절)

- ㉠** (1)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코자 귀환한(참조, 1:5) 제사장들의 총수는 4,289명이었다.
 (2) 그런데 이 수자를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 전체 합계인 42,306명(64절)과 비교하여 보면 백성 약 10명당 제사장이 한 명 꼴로 되었다.
 (3) 이러한 수자 비율이 실질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共同体)가 철저하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4)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특별하게 계급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배하지 않지만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진력해야 한다(참조, 벧전 2:5).

12. **㉠** 노래하는 자들은 몇 명이나 돌아왔는가? (41절)

- ㉠** (1)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으로서 바벨론에서 148명이 유다로 돌아왔다.
 (2) 자세한 것은 느 7장 **㉠** 10을 참조하라.

13. **㉠** 느디님 자손 중 예루살렘과 유다 도(道)로 귀환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43-54절)

- ㉠** (1)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위해 나무를 패거나 물 길는 일 등을 하며 봉사하던 이방인들로서 성전의 노예였다(참조, 수 9:17-21; 스 8:20).
 (2)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총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의미 심장(意味深長)한 것이다(참조, 느 7장 **㉠** 11, 15).
 (3) 그들은 시하 자손 이하 33가족이나 되었다.

14. **㉠** 귀환한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55-59절)

- ㉠** (1) 그들은 소대, 하소벳, 브루다, 야알라, 다르곤, 깃털, 스바다, 하달, 보게렛하스다임, 야미 자손 등 11가족이나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 때(수 9:27) 포로로 잡혀온 가나안 원주민들이라고 생각된다(참조, 왕상 9:20, 21).
 (3) 이와 같이 이방 노예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참조, 1:5) 다시 유다로 귀환한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다 비추임을 알 수 있다.
 (4) 더 자세한 내용은 느 7장 **㉠** 11, 15를 참조하라.

15. **㉠**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는가? (59-63 절)

- Ⓐ (1) 그런 자들은 일반 백성 중에도 있었고 제사장의 자손 중에도 있었다.
- (2)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들이었다.
- (3) 구체적인 내용은 느7장 ④ 12를 참조하라.

16. ㉠ 본장에서 말하는 방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63 절)

- Ⓐ (1) 이 방백(方伯)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유대인 중에 총독이었던 스투바벨을 가리킨다.
- (2) 더 상세한 내용은 ④ 5와 1장 ④ 21을 참조하라.

17. ㉠ 방백이 제보에 들지 못한 제사장 반열의 자손들에게 명한 명령은 무엇인가? (65 절)

- Ⓐ (1) 그것은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비록 제사장 반열에 속하였다 하여도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 (2)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유지하고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런 명령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불결을 뉘우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 (4) 이와 같이 징계는 받을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鍊達)한 자에게는 의(義)의 평강(平康)한 열매를 맺게 한다(참조, 히12:11).

18. ㉠ 당시 돌아온 자들의 총계가 42,360명이었다면 그밖에 노비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64, 65 절)

- Ⓐ (1) 당시 돌아온 자들 중에 이스라엘 본 자손이 아닌 노비들이 7,337명이나 되었다.
- (2) 이러한 노비의 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대비해 볼 때 본 자손 6명당 1명 꼴에 해당되었다.
- (3) 자세한 것은 느7장 ④ 15를 참조하라.

19. ㉠ 본서의 저자는 돌아온 자들의 목록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였는가? (68, 69 절)

- Ⓐ (1) 본서의 저자는 돌아온 자들 중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린 행위를 기록하였다.
- (2) 저자는 그들이 예물을 즐거이 역량(力量)대로 드렸다고 하였는데 그 드린 예물의 내용은 금이 61,000다릭(약 2억 4천 만원), 은이 5,000마네(약 1억 3,600만원) 또 제사장의 의복이 100벌이었다.
- (3) 여기서 저자는 돌아온 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성전 건축이요 또 성전 제사의식의 회복임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4)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억지로 하거나 그들의 역량(力量)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참조, 1:4, 6)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요 즐겁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참조, 시 100:1-5).

20. ㉠ 본서의 저자는 돌아온 자들을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로 나누었는가? (70 절)

- Ⓐ (1) 저자는 돌아온 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 및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등 성전 예배를 위해 필요한 자들을 한 부류로 나누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무

리를 또 한 부류로 하여 두 부류로 나누었다.

- (2) 이렇게 기술한 저자의 의도는 다시 한번 돌아온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 (3) 그리하여 이어지는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에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가 회복되며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다.
- (4) 이러한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 회복의 중요성은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며,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참조, 출 19:5, 6)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5)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신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히 알고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전 1:26-31; 골 3:12-17).

화보자료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아래의 사진은 암스텔담 성경 박물관에 복원된 구약 성경의 여러 모습 가운데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성가대 모습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노래하는 자들' 128 명이 있었는데(41, 70절) 이들은 여러 악기를 가지고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었다(참조, 3:10). 한편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강조되었다(엡 5:19).

제 3 장 성전 재건(再建)을 시작하다

단락구분 1:6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 7-9 성전 공사를 감독할 자들을 세우다 / 10-13 성전의 지대(地臺)가 놓여지다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니라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3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 칠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읍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8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이 년이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9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10 건축자가 여호와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신하시므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13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1:3)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본성(本城)에 자리를 잡은 후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율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 (2) 그러나 성전은 허물어지고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성전 재건은 지대(址臺)를 정리하고 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이에 돌아온 자들이 이듬해 2월에 그 일을 시작하므로 우선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게 되었다.
- (3) 이러한 일들은 당시의 세계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일개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하찮은 사건같이 보일지 모르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대왕(大王)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뒷받침해 준 구속 역사(救贖歷史)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 (4) 오늘날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중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세위 주시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참조, 고전 1:27)
- (5)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역사 의식(歷史意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을 우리들도 크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2. **㉠** 본성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본장에서는 7월에 이르러 모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해 7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바로 그 해의 7월임이 분명하다.
- (2) 왜냐하면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성전의 기초를 다진 때가 그들이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의 2월이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바벨론에서 팔레스틴까지의 여행 거리가 약 1,440km 정도이어서 여행하는데 최소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참조, 7:9).
- (4) 또한 본장의 7월이 태양력으로는 9, 10월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겨울철이 지난 봄경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4개월 정도 여행을 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모인 것은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임이 분명하다.
3. **㉠**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2절), 즐거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다(5절).
- (2) 그런데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였다.
- (3)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라도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義)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참조, 마 6:33).
4. **㉠**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7월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었는가? (1-7절)
- ㉠** (1)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7월에는 신년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초막절) 등이 있었다.
5. **㉠**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백성들 앞에 나선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2절)
- ㉠** (1) 이들은 모두 귀환할 때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었다(참조, 2장 **㉠** 5, 6).
- (2) 여기서 저자는 대체사장인 예수아를 앞에다 내세워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3) 더우기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 그들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의식을 기술하였다.
- (4)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투철한 의식(意識)이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을 지배하였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참조, 골 3:1).
6. **㉠**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을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내게 한 뜻밖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3절)
- ㉠** (1) 그것은 우리가 열국 백성, 즉 유다 들레의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 (2) 즉 돌아온 자들은 소수인데 비해 들레의 이방 족속들은 다수였고 또 그 이방인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였으므로(참조, 왕하 17:27-33) 이제 순결하게 여호와를 섬기려는 자들에겐 큰 위협 요소가 되었다.
- (3) 그러므로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율법이 명하는 바대로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 (4)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세상의 거대한 세력에 의해 두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더욱 하나님께 열심 내어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18:1-6).
7. **㉠** 여호와와의 전 지대(地臺)가 아직 놓여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종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6절)

- Ⓐ (1)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성전이 황폐해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기록되어진 모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2)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단을 만들고(3절), 기록된 규례대로 7월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며, 그 후에 초막절(참조, ㉠4)과 기타 절기를 지켰다.
- (3)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지 어떤 외형적인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참조, 렘 31:31-34).

8. ㉠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5절)

- Ⓐ (1) 그것은 주로 절기 때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나 낙헌제 등을 가리킨다(민 29:39).
- (2) 이렇게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예물까지 바쳤다.
- (3) 이것은 그들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에서 풀려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사방의 대적에게 둘러싸인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 것이었다.
- (4)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은 칠흑 같은 밤에 별이 더 빛나듯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난다(참조, 단 3:17, 18).

9. ㉠ 1-6절에서 7월에 지켜져야 할 절기 중 언급되지 않은 절기는 무엇인가?

- Ⓐ (1) 7월에 지키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참조, ㉠4)이었다. 그런데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 여기서 속죄일에 대해 언급이 없는 이유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가 반드시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나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나 이런 사실은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말하며 곧 이어 다음 부분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다.
- (4)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처지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주목해야 한다.

10. ㉠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대(地蠹)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붕괴되어진 과정을 설명하라(6절).

- Ⓐ (1) 솔로몬(B.C.970-930)이 세웠던 성전(B.C.959, 왕상 6:37, 38)은 1세기를 지나자 퇴락하여 수리를 요하게 되었고, 요아스는 이를 위해 수고하였다(왕하 12:4-15).
- (2) 그러나 요아스는 시리아 왕 하사엘이 침입했을 때 성전 보물을 꺼내어 배상금으로 주었다(참조, 왕하 12:17, 18).
- (3)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을 헐고 성전 안의 금은과 기물들을 약탈해 갔다(참조, 왕하 14:11-14).
- (4)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는 성전을 지은 지 약 2세기 후에(B. C.735년경) 앗시리아 왕에게 성전 보물을 꺼내 주며 동맹을 맺었고, 또한 다메섹에 가서 새로운 형태의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 그것을 본뜬 새로운 구조의 제단을 짓게 했으며, 본래의 제단은 보다 덜 중요한 제사 의식 때 사용하였다.
- (5) 또한 아하스는 청동의 물두멍을 헐고, ‘바다’를 받치던 소들을 떼내고 그 자리에 돌로 만든 받침을 갖다 놓는 등 소소한 구조상의 변화를 꾀했다(참조, 왕하 16:7-18).
- (6)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배상금으로써 성전의 금은 보물을 바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하여 성전의 보물을 꺼내고 여

러 금장식에서 금을 벗겨야 했다(참조, 왕하 18:15, 16).

- (7) 더우기 여호와를 배반한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 갖가지 이교도의 제단, 상(像), 기구를 설치했는데, 요시아에 의해 이런 것들은 청소되고 퇴락된 성전이 수리되기도 하였다(참조, 왕하 21:3-7; 22:3-9; 23:1-4, 6, 7, 11, 12).
- (8) 그러나 느부갓네살이(B.C. 605-562) 2차 공격 때 성전의 금그릇과 보물 등을 빼앗아 가고서(참조, 왕하 24:13; 대하 36:10) 이어 3차 공격 때 성전의 물건들을 낱알이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읍의 태반과 함께 성전을 불살라 버렸다(B.C. 586, 참조, 왕하 25:8-12).
- (9) 이와 같이 솔로몬 때(B.C. 959)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방인 느부갓네살에 의해 허물어졌고(B.C. 586) 그 후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B.C. 537) 지대부터 다시 세워야 했다.

11. **㉠**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7절)

- ㉠** (1)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준비하였다.
- (2) 그리하여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 일하게 하였고(참조, 대상 22:2, 15)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식으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재료를 준비하였다(참조, 대상 22:4; 대하 2:8-10).
- (3)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성전 재건의 준비는 무리함이 없이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줄 것을 정당하게 지불하면서 진행되었다.
- (4) 이러한 것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억지로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과 정당하게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12. **㉠** 성전 재건에 사용될 백향목은 무엇을 근거로 레바논에서 옴바 해변까지 운반되었는가? (7절)

- ㉠** (1) 그것은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詔書)를 근거로 하여 되어졌다.
- (2) 그러나 고레스 왕의 조서는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는 있으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목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참조, 1:2-4; 6:3-5).
- (3) 하지만 구체적 사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을 허락한 사실 안에는 그 일에 수반되는 모든 세부 사항들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더우기 당시 시돈과 두로 지역은 고레스의 통치를 받던 지역이었으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활용하였음이 분명하다.
- (5) 여기서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쓸모없다고 여겨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3. **㉠** 성전 재건을 위한 품목을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가? (6-8절)

- ㉠** (1) 소요된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7월에 제단을 쌓고 규례대로 절기를 지킨 후부터 공사를 시작한 다음 해 2월까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 (2) 이런 사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심이 대단했던 것을 잘 보여 준다.
- (3) 일단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맡은 자는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해야 한다(참조, 고전 4:2).

14.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전(殿) 역사(役事)를 시작한 때는 언제였는가? (8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황폐해진 전(殿)에 이르지 2년 2월이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한 B.C. 536년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B.C. 536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B.C. 605-562)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B.C. 605년부터 계수하여 70년 되는 해였다(참조, 대하 36:5-7).
- (3) 그러므로 이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

여 하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참조, 렘 25:11; 29:10).

(4)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의 감격은 대단하였을 것이고 또 숙연하였을 것이다 (참조, 고전 15:12-19).

15. **㉠** 여호와와의 전(殿) 역사(役事)를 감독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은 누구였는가? (8절)

- ㉠** (1) 그들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의 세부 사항을 감독하도록 세워졌다.
- (2) 그런데 율법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맡는 나이를 30-50세까지 혹은 25-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참조, 민 4:3; 8:24, 25).
- (3) 그러나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는 (참조, 대상 23:24-27; 대하 31:17)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일이 있으며, 더우기 당시 상황에서는 할 일이 많으나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했다.
- (4)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꼭 어떤 연령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 신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16. **㉠** 여호와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 (10, 11절)

- ㉠** (1) 그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행사가 있었다 (참조, 대상 6:31, 32; 16:4).
- (2)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참조, 69절) 나팔을 들고 (참조, 민 10:8; 대상 16:6),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로 찬송을 화답하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하였다.
- (3)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다윗의 규례대로 행해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4) 우리는 때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찬송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된 심정과 태도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 마 5:48; 엡 5:18, 19).

17. **㉠**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이 지극히 선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인자가 영원하다고 찬송하였다.
- (2)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에게 형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였고 일시적으로 그런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형벌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임을 믿었다.
- (3)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 고백이었다 (참조, 대상 16:34, 41).
- (4) 이런 신앙 고백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조, 엡 2:1-10).

18. **㉠** 즐거운 찬송 소리가 울려 날 때 대성 통곡(大聲痛哭)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12절)

- ㉠** (1)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여러 노인들이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시인 B.C. 586년이므로 그들은 청년 시절에 그 성전을 보았을 것이다 (참조, ㉠14).
- (2) 그들이 이렇게 크게 울었던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보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수치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기 때문이었다.
- (3) 울음은 당시 백성들의 전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다 (참조, 11절).
- (4) 이런 것에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즉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한다고 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감격하는 기쁨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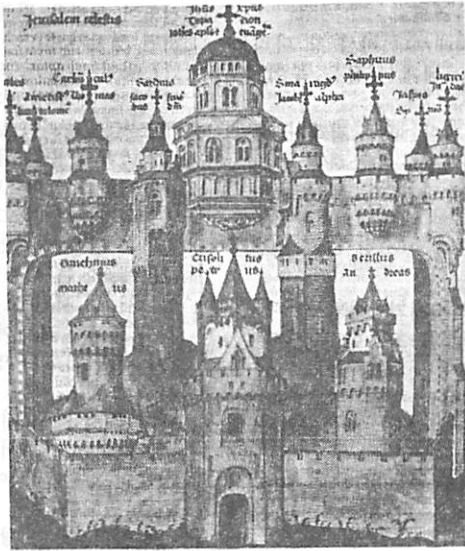
한다(참조, 살전 5:6).

19. **Q**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크게 소리쳐 하나님께 찬송하였는가? (13절)

- A** (1) 백성들의 노래하는 소리와 감격하여 우는 소리가 분간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 (2) 이러한 정도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수치와 굴욕을 벗어던지고 그 영광을 회복할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할 것이므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상태에 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기쁨과 믿음의 경지에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크신 은혜를 찬송할 때 온 힘을 다해 소리쳐 외치며 찬양해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송은 아무리 해도 다함이 있을 수 없다(참조, 시 103:1, 22).

화보자료

하늘 위의 예루살렘. 아래의 사진은 15세기의 「리베르 플로리 두스」라고 하는 사본에 삽입된 삽화로서 샹티이 콩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예루살렘은(1절)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터전이다. 왜냐 하면 그곳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성전(왕상 6:13) 때문에 예루살렘은 귀하게 여겨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신약에서는 하늘나라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계 3:12; 21:2).

제 4 장 성전 공사가 중단되다

단락구분: 1-6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다 / 7-16 아닥사스다 때의 방해 공작 / 17-23 아닥사스다가 성 역사(城役事)를 그치게 하다 / 24 성전 공사가 중단되다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저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회하였으며

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회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7 아닥사스다 때에 비술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8 방백 르훬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9 방백 르훬과 서기관 심새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테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12 왕에게 고하노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

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 이제 왕은 아시읍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15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훼파되도 이 까닭이니이다

16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역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17 왕이 방백 르훬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회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18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 명하여 살피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21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여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24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훬과 서기관 심새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회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

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 이 년까지 이르니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가?

㉠ (1) 본장은 순결한 이스라엘 자손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 (2) 그러나 본장의 구성 자체는 여러 가지 사해를 모아서 나열하고 있으므로 꼭 성전 재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한 세력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 (3) 그런데 이것을 통해 순결한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여호와 종교의 회복과 그에 대항하는 혼합 종교를 추구하는 세력간의 미묘한 갈등을 밝히면서 순수한 여호와 종교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 (4) 여기서 보듯이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때 순결하지 못하도록 혼잡케 만들며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벧전 5:7, 8).

2. **㉠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한 때는 언제였는가? (1절)**

- ㉠** (1) 그것은 대적들이 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난 후였다.
- (2) 이렇게 대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될 때부터 그 일을 방해한다(참조, 요 8:44).

3. **㉠ 저자는 방해하는 세력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 ㉠** (1) 저자는 그 방해하는 자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던 유다와 베냐민에게 대적한 세력의 성격을 묘사한 말이다.
- (2) 구체적으로 그들은 앗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의 종교도 역시 혼합 종교로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하나의 지방 신 정도로 혼합해서 섬겼던 자들이었다(참조, 왕하 17:24, 33).
- (3)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순결하게 모세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긴(참조, 3:2, 4)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대적이 되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혼합 종교의 위협과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길 것 등의 교훈을 얻게 된다.

4. **㉠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2절)**

- ㉠** (1) 방해 공작은 달콤한 타협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니 같은 성전을 건축하자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제안하였다.
- (2) 또한 대적들은 앗수르 왕 에살합돈(B. C.681-669)이 팔레스틴을 정복한 날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임을 주장하였다.
- (3)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즉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못했던 귀환민들이 그들과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까지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었다.
- (4) 사실 성도들을 꺾이는 혼잡한 악의 세력은 성도들을 무조건 억압하는 수단을 취하기 보다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자기들의 본색(本色)을 위장하면서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참조, 고후 11:13-15).

5. **㉠ 이러한 대적의 유혹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3절)**

- ㉠** (1)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목소리로 그 대적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즉 순결한 여호와 종교의 회복을 위해 어렵더라도 돌아온 자기들의 힘만으로 건축하겠다고 대답하였다.
- (2) 이러한 대답은 순결하고 용감한 신앙인들의 대답이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의지함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 (3) 이렇게 신앙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결단성 있는 용감한 태도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기 보다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참조, 눅 12:4, 5).

6. **㉠ 이스라엘 자손이 인용하는 직접적인 거절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3절)**

- ㉠** (1) 그것은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조서 때문이었다(참조, 1:2-4).
- (2) 즉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조서(詔書)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다.

- (3)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를 인용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 (4) 왜냐하면 그 고레스를 세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참조, 1:1) 고레스를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정당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손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세상 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참조, 요 17:15).

7. **㉠** 피이는 말로 유혹하는 데 실패한 대적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는가? (4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순결한 여호와 종교를 회복키 위하여 대적들의 타협안을 거절하자 그 땅 백성,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다.
- (2) 그런데 본질의 '손을 약하게 한다' 라는 말은 사람으로 낙심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삼하 4:1; 사 13:7; 렘 6:24; 50:43).
- (3) 그러므로 대적들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겁을 먹게 하여서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지 못하도록 했음이 분명하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은 성도들이 순결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며 낙담하여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
- (5) 그러나 이러한 때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안하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욱 하나님을 순결하게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대적해 싸워야 한다(참조, 갈 6:9; 히 12:3, 4; 약 4:7).

8. **㉠**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5절)

- ㉠** (1) 대적들이 사용한 방해 공작은 바사 제국의 '의사들' 즉 왕의 궁정에 있는 고위 관리나 보좌관들(참조, 7:14, 28)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한 것이다.
- (2) 그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성전의 지대를 놓은 직후(B. C. 536) 부터 다리오 2년(24 절, B. C. 521) 까지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의 큰 지원하에 행해지던 성전 재건 사업이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만 중단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 (4) 여하튼 여기서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의한 방법, 즉 뇌물 공여 등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9. **㉠** 본서의 저자는 어떤 기사를 첨가하여 대적들의 성격을 설명하였는가? (6-23 절)

- ㉠** (1) 저자는 다리오(B. C. 522-485)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하수에로(B. C. 485-469)와 아닥사스다(B. C. 464-424) 때의 사건을 삽입하고 있다.
- (2) 여기서 두 사건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과 성격은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적들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 (3) 그러므로 저자인 에스라는 이런 사건을 첨가시켜서 대적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해거리가 되었는가를 말해 준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세상의 권력을 오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10. **㉠** 저자가 아닥사스다 때의 사건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가? (7-24절;7:1, 6)

Ⓐ (1) 에스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때의 사건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사 왕궁에서 중대한 위치에 있던 자로서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사건 추이를 주시했었기 때문이다.

(2)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본받아야 할 태도이다.

11. Ⓒ 아닥사스다 때에 올려진 고소문은 어떤 문자로 기록되었는가? (7절)

Ⓐ (1)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고소문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었다.

(2)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람어가 제국 내의 공용어이었기 때문이다.

12. Ⓒ 아닥사스다 때에 르훔과 심새와 함께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8-10절)

Ⓐ (1) 방백 르훔은 사마리아에 주재한 바사의 행정관이고 심새는 그의 서기관이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온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하였다.

(2) 그러한 자들을 다시 나열해 보면 디나, 아바삿, 다블래, 아바새, 아렉, 바벨론, 수산, 데해, 엘람, 사람들 등으로 그들은 앗수르 왕 오스납발(B.C.668-626)에 의해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이주된 자들이었다(참조, 왕하 17:24).

(3) 당시 이들은 팔레스틴의 실권을 잡고 있던 자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융성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음에 틀림없었으므로 이렇게 제국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해(謀害)하려 했던 것이다.

(4)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유형적(有形的)이고 구체적(具體的)인 세력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융성과 쇠퇴를 보였고 대적들의 세력도 분명하게 드러났었다.

(5)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임으로 외형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더욱 무서운 전법(戰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자(참조, 엡 6:12).

13. Ⓒ 저자가 요약한 대적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1-16절)

Ⓐ (1) 그 내용은 귀환한 유다인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일이 완공되면 유다인들은 왕에게 반항하여 손해를 끼칠 것이므로 유익을 위해 이런 사실을 아뢴다는 것이었다.

(2) 또한 그 대적들은 이런 사실을 열조의 사기(史記)를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충언(忠言)을 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의 정치적인 공세는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자기들의 세력 유지를 위한 간계(奸計)였다.

(4)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은 온갖 간계를 동원하여 자기들의 유익만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꾀방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간교한 대적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드러내어야 하며 악한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참조, 엡 6:10-20).

14. Ⓒ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의 훼파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 (15절)

Ⓐ (1) 대적들은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당시의 세계사를 기술한 제국의 사기(史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를 서술하였다.

(2) 그리하여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패역하며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제국에 손해가 되었고 그 까닭 때문에 성읍이 훼파되었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해 무지(無知) 하므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파악하고 기술한다.
- (4)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크고 좋은 것으로 보고 손해가 되면 악평을 한다.
- (5)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불신자들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과거와 우리의 세대를 파악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같은 명예를 메어서도 안 된다(참조, 고후 6:14-18).

15. **㉠** 대적들의 고소장은 어떤 효과를 내게 되었는가? (17-22절)

- ㉠** (1) 대적들의 고소장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 운동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하였다.
- (2) 그리하여 대적들은 왕에게서 칭찬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役事)를 속히 중단하도록 하는 왕의 조서까지 받게 되었다.
- (3)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역사(歷史)가 어떤 자들에 의해 누구를 위하여 움직여 지는지 의혹을 품게 될 수도 있다.
- (4) 그러나 참신앙인이라면 역사(歷史)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 주의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야 한다(참조, 롬 12:2).

16. **㉠**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하고 있는 열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9절)

- ㉠** (1) 이 열왕은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직접적인 조상들만이 아니라 메대와 바벨론 왕조의 열왕들까지도 포함한다.
- (2) 왜냐하면 바사 제국은 스스로 자신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新)바벨론의 합법적 계승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이다.
- (3) 이렇게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합법적인 것을 내세우며 권력을 정당화한다.
- (4) 그러나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세상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참으로 허망한 권세요 권력일 것이다.

17. **㉠** 아닥사스다 왕이 확인한 예루살렘 성읍의 패역과 모반 행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19절)

- ㉠** (1) 본문에서는 바사 왕이 확인한 이스라엘의 모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 (2) 그러나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서적 참고에서 모반 사건들에 대해 찾아볼 것을 명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성경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 그것은 다윗에 대한 아도니야의 반란(왕상 1:5)이나 압살롬의 반역(삼하 15:10)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列王)들의 물고 뜯는 반역 행위를 지적한 듯하다.
- (3) 이와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준 바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 겨우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피하는 도당 정도로 인식되었다.
- (4)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빛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의 자리에 빠지면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롬 13:4).

18. **㉠** 옛적에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0절)

- ㉠** (1) 여기서 말하는 '큰 군왕'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확장시킨 다윗과 솔로몬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큰 세력을 이루었다(참조, 왕상 4:21).
- (3)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던 중 다윗의 치세에 기반을 두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영광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19. **㉠**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기준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22절)
- ㉠** (1) 그 기준은 자기 왕조에 손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다.
 (2) 이렇듯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통치해야 할 것이나 결국은 범죄한 인간의 습성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참조, 1:1-4; 6:10) 불리할 것 같으면 등을 돌려 불의를 행한다.
 (3)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곤경에 빠지고 또한 낙심과 불안에 빠질 때가 많다.
 (4) 그러나 참신앙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므로 세상의 불의에 낙심하지 않고 의의 군사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참조, 히 11:7).
20. **㉠** 대적들의 체계는 마침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23절)
- ㉠** (1) 대적들의 체계는 당시의 최고 실권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들의 뜻대로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예루살렘 성 중건(重建)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
 (2) 이 대적들은 당시의 법률로는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선한 일을 중단케 하였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만족하였을 것이다.
 (3) 그러나 이들의 방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며 스스로 진노와 심판의 죄악을 행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고 합법적이라는 미명하(美名下)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방해한다(참조, 롬 1:18-23).
21. **㉠** 하나님의 전(殿) 역사(役事)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언제까지 중단하게 되었는가? (24절)
- ㉠** (1) 고레스 왕에 의해 허락되고 명령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B. C. 537)의 역사는 대적들의 방해로 다리오 왕 2년(B. C. 520)까지 거의 16년 동안이나 중단케 되었다(5절).
 (2) 그런데 본서의 저자는 방해하는 대적들의 성격을 다리오 왕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서 추출하지 않고 저자 자신이 듣고 조사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을 인용하면서 밝혀 주었다.
22. **㉠**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 24절)
- ㉠** (1) 본서의 저자는 성전 공사의 중단 원인을 대적들의 방해에다 초점을 맞추었지만(5절) 그 당시의 선지자로 활약한 학개나 스가라에 따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희미해진 데 있었다.
 (2) 이것은 소선지서인 학개나 스가라에서 알 수 있는데 학개 선지에 의하면 대적들의 체계에 의하여 성전이 황무해졌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화려한 집에 거하였다고 했다(참조, 학 1:4).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인정과 후원을 받아 진척될 때는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였으나(참조, 1:5)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 주변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는 두려워하였고(참조, 3:3) 대적들의 체계로 정치, 경제적 후원이 끊어지자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기 보다 자기들의 편이(便易)를 먼저 생각하였다(참조, 학 1:4).
 (4)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미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눌려서 주저앉게 되었다.
 (5) 여기서 성도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가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고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6) 진정한 성도라면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제 5 장 성전 건축이 재개(再開) 되다

단락구분 1-2 선지자들의 격려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다 / 3-5 이방 총독들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심문하다 / 6-17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글의 내용

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 이에 스달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여 돕더니

3 그 때에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 동료가 다니아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 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6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7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안하옵소서

8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10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11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12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매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3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14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15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16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역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1. ㉠ 본장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라.

- ㉠ (1)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B.C.520)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의 권고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고 이에 대응하여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권력자들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리오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본장에 서술되어 있다.
- (2) 이제 세상의 열왕에 의해 명령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시 세상 열왕들에 의해 중단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재개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셨다.
- (3) 이에 낙담에 빠졌던 이스라엘 자손은 외부적인 조건이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심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고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역사를 이방 총독들도 막지 못하였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낙담에 빠져 자기 안일만을 구할 때 권고하시고 경계하시며 새롭게 일어서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찬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26:13).

2. **㉠ 성전 공사가 계속 중단된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1절)**

- ㉠** (1)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한 신앙이 대적들에게 눌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 (2) 그들은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 (3)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었으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신다.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며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참조, 사1:8, 19).

3. **㉠ 선지자 학개는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그는 스가라와 동 시대의 선지자로서 스가라보다 두 달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다.
- (2) 그런데 학개에 대해서는 본서 5:1;6:14에 두 번 언급되었을 뿐 학개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 어디든지 기록된 곳이 없다.
- (3)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인의 고국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 스킴바벨과 같이 귀국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학2:3-9).
- (4)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라는 인물을 통해 네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격려하시며 성전 건축을 재개토록 촉구하셨다.

4. **㉠ 학개 선지를 통하여 하신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1절)**

- ㉠** (1) 그 내용은 성전 건축의 중단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무관심과 나태를 책망하며 성전 건축의 재개(再開)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 (2) 또한 이러한 당면 과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臨在)의 영광, 장차 세워질 여호와의 나라, 불의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의 축복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
- (3) 그리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5. **㉠ 선지자 스가라는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제사장 가문 출신인 스가라는 아버지 베레가가 일찍 죽었으므로 곧 조부 잇도를 계승한 것 같다(참조, 느12:4).
- (2) 스가라의 이름은(구약에서 이 이름을 가진 자는 29명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며 선지자 스가라가 다리오 2년(B.C. 520)에 예언을 시작하여 다리오 4년(B.C. 518)까지 예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참조, 습1:1;7:1).
- (3) 이와 같이 스가라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성전의 가치와 참제사장의 사역을 강조하였고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메시아 대망(待望)을 폭넓고 깊이 있게 가르쳤다.

6. **㉠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였는가? (1절)**

- ㉠** (1)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였다.
- (2)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의 예언이 자기들의 사상이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실을 보여 준다.

(3)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사상이나 편견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받들어 증거해야 한다.

7. **㉠** 선지자들의 예언에 힘입어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는 언제이었는데? (2절)

㉠ (1)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다리오 왕 2년(B.C. 520) 6월 1일이었는데(참조, 학 1:1) 그 예언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건축 공사를 다시 착수한 것은 6월 24일이 었다(참조, 학 1:14, 15).

(2) 이와 같이 불과 24일 만에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된 것은 당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 언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나를 짐작케 한다.

(3)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참 조, 히4:12).

8. **㉠** 선지자들은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가? (2절)

㉠ (1)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서 떠나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 하여 줌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였다.

(2) 특히 선지자 스가라는 당시 그들이 위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유다 백성은 하 나님의 징계로 이미 연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속 3:4, 5). 그 러므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으며 그 건축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이다.

(3) 한편 성전 재건 사업은 하나님의 신(神)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스룹바벨에게 임할 것 이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성취하리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종교 지도자들의 격려와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이끔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움이 된 것은 긴 역사(歷史)를 통해 하 나님의 말씀을 접한 역사적 경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9. **㉠**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것에 대해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3-5절)

㉠ (1) 선지자들의 권고에 따라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 보스내와 그 동료들, 즉 이방인들의 세력자들이 다 나와 성전 건축에 대해 심문하였다.

(2)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은 성전 건축의 합법성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의 책임자 명단과 바 사 조정으로부터의 허락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문서로 작성하여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였다.

(3) 그러나 조사 기간 중에도 성전 공사는 중단 되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서 순전한 신앙으로 일어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었다.

(4)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는 일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 가 항상 똑같지 않음을 본다(참조, 1:1-4; 4:5).

(5)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목적 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기록하고 의롭게 세우시려는 것임을 성도들은 깨 달아야 한다(참조, 마 1:21).

10. **㉠**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 닷드내 등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글의 내용은 어떻게 구 성되었는가? (6-17절)

㉠ (1) 그것은 바사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한 자기들의 조사 내용과 유대 지도자들의 답변을 공정하게 기록하였고 맨 끝에는 이 문제에 대한 왕의 답서를 요구하 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2) 이 조서의 내용 중 11-16절은 관리들의 질문에 대한 유다 장로들의 답변을 그대로 기 록하였는데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 (3) 이러한 내용이 바사의 관리들에 의해 바사의 왕에게 보고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신 결과에 기인한다(참조, 5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청종하려는 자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지켜 주신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하여 움추러 들지 말고 사람이 알아 듣도록 말씀하신 진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해 가야 한다(참조, 마 6:33, 34).

11. **㉠** 조서를 올리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열심히 건축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묘사하였다.
- (2) 그들이 이러한 묘사를 진심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유다 장로들과의 문답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의 진실된 신앙 고백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증거하도록 힘써야 한다.

12. **㉠** 이방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성전 건축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었는가? (8절)

- ㉠** (1) 이방인들은 직접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공사 상황을 눈으로 목격한 후 그 성전 공사가 큰 돌로 세워지며 벽에 나무를 없는 등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므로 형통(亨通)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2) 이와 같이 성전 재건 공사는 처음과는 달리 이방인의 조사가 진행되는데도 중단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 (3)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 변화는 문자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전한 신앙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다(참조, 히 11:6).

13. **㉠**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自己認識)은 어떠하였는가? (11절)

- ㉠** (1)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였다.
- (2) 물론 모든 인생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었다(참조, 사 1:2-4).
- (3) 그러므로 여기서 유대인들의 고백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 (4) 이와 같이 참신앙이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다(참조, 시 147:6; 벰전 5:6).

14. **㉠**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들에게 패망하게 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12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열조가 이방인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망하게 되고 성전이 헐리며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을 우연한 역사적 과정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께 범죄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2) 이러한 역사 인식은 신앙인이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패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는다.
- (3)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제반 인생사의 여러 과정에 대하여 항상 신앙인의 눈으로 평가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15. **㉠** 1장과 비교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문에는 고레스와 관계된 성전 건축에 대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13절)

- ㉠** (1) 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의 명령이 세상 만국을 그에게 주신 여호와

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기술되었지만(1:2) 본장에서는 단지 바벨론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고 기술하였다(참조, 6:3).

- (2) 이러한 기술의 차이는 보고자들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즉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의 눈에만 보이지 육에 속한 자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2: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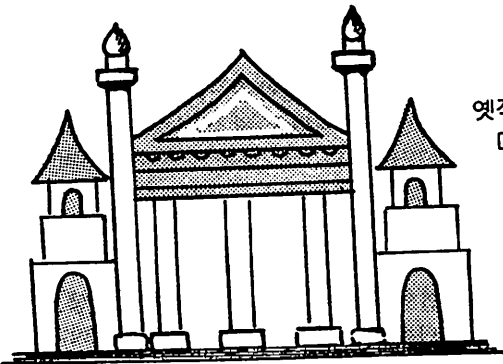
16. **㉠**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 태도는 어떠한가? (13-16절)

- ㉠** (1)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앙이 없는 자들은 보지 못하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평이하게 사실 묘사를 하였다.
- (2) 즉 조서를 내린 사실과 물질적인 금·은 기명들을 읊기는 일들이라든가 그 지도자를 임명한 사실 등에서는 가감 없이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 (3) 이같이 일방적으로 불신앙인이라 해서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4) 불신앙인들도 만인이 누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어설픈 신앙인보다 더 진실되고 의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17. **㉠** 바사의 관리들이 바사 왕에게 올린 보고문에서 결론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바사의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자기들이 심문하여 얻은 답변들을 사실적으로 보고하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성전 건축의 인기증(詔可證)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보고 왕의 결심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이러한 보고와 요청은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올려졌던 대적들의 보고와 요청의 성격에 비해 지극히 유순하고 보다 정직한 내용이었다(참조, 4:11-15).
- (3)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들의 태도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차후의 결과에 대하여 약간의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게 한다.
- (4) 그러나 성도들의 궁극적 신뢰는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그분의 섭리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본장의 요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로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11절).

연구자료

예배 처소의 변천

여호와 신앙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비롯되어 온 인류에게까지 파급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公衆禮拜)를 드리지만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러던 것이 출애굽 이후 성막이라는 공중 예배 처소가 생겨났으며 그것이 발전하여 성전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으로 변천되었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변천 과정을 따라 여러 형태의 예배 처소 및 그에 따른 예배 형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제단(祭壇)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족장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는 가족 예배였다. 물론 가족 예배는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항상 행하여져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공중 예배와 병행하여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나 족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예배 처소는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니 어느 곳에서든 돌로 쌓는 제단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었다(창 8:20; 12:7; 25:25).

(2) 성막(聖幕)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공중 예배의 체계가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더불어 비롯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에 관한 제반 규례를 주셨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참조, 출 40장). 성막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 행사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신 16:16). 이와 같은 성막 예배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족장 시대부터 행해져 온 희생 제사(犧牲祭祀) 제도를 보다 조직화하였으며(참조, 레 1장) 안식일 규례를 엄격히 정비하였다(레 23:1-3). 한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부분은 언약케인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다(참조, 출 37:1-9).

(3) 성전(聖殿)

솔로몬 시대에 이르자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여호와와의 언약케를 이곳으로 옮기었다(왕상 8장). 이로써 성전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본산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다. 이로 인해 희생 제사 제도는 더욱더 조직화 되었으며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사독(Za-

dok)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이 사역을 담당하였다. 한편 성전 예배로 인해 파생된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음악적 측면이다. 성전 예배에 있어 찬양을 맡을 성가대가 조직됨(대상 25장)과 아울러 찬송가로 사용될 시편집이 만들어졌으니(보기, 시 113-118; 120-134; 136편), 이제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가 되었다.

(4) 회당(會堂)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가피하게 예배 처소의 변모를 가져 왔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었지만(6:13-22) 바벨론에 그대로 정착했거나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생겨난 예배 처소가 곧 회당인데 '회당'(Synagogue)이란 말 자체는 '회중'(Congregation)이란 뜻이다. 이러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건립되어 그 수효가 급증되었는데 A. D. 1세기에는 예루살렘에도 480여개나 되는 회당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회생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율법 때문에 회당에서는 예배만이 거행되었으며 예배를 주관하는 것도 제사장이 아닌 회당장이 맡아 하였다. 회당 예배는 ① 기도예의 부름(사회자가 신 6:4-9; 11:13-21 등을 낭독함) ② 대표 기도 ③ 성경 낭독 및 말씀에 대한 해석 ④ 축복 기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번째 순서이다. 한편 이 같은 회당은 예배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장소이기도 하였는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초등 과정으로서의 율법 교육이 이곳에서 행하여졌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회당에서 종종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마 13:54; 막 1:21).

(5) 교회(敎會)

초대 교회의 예배 처소는 오늘날과 같은 외형을 지닌 건물이 아니었다. 다만 유대적 정통주의에 대립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그리스인들이 따로 모임을 가졌던 곳이 바로 교회이니 처음에는 그러한 예배 처소로서 다락방(행 1:13; 20:8)이나 개인의 집(몬 1:2)이 이용되었다. 한편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구원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서 장소가 아닌 모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18:20). 근대식 교회의 건립은 기독교가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349년에 완공된 후 17세기에 이르러 개축(改築)이 끝난 '성 베드로 대성당'은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초대 교회는 말씀을 상고하며 성만찬 및 세례 예식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전(禮典)으로 받들어 행하였으니 이러한 예전은 오늘날까지도 지켜 행해지고 있다(참조, 행 2:38-47).

제 6 장 성전 건축이 필역(畢役)되다

단락구분 1-12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다 / 13-15 성전 건축을 필역(畢役)하다 / 16-18 성전 봉헌식(奉獻式)을 행하다 / 19-22 유월절(逾越節)을 지키다

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공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다

2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도

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옥십 규빗으로, 광도 옥십 규빗으로 하고

4 큰 들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기명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6 이제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탈보스내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7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마치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9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10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때어 내고 저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이다 하였더라

13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탈보스내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필역하되

15 다리오 왕 육 년 아달 월 삼 일에 전을 필역하니라

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17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일백과 수양 이백과 어린 양 사백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열 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19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십 사 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22 즐거우므로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지지 부진(遲遲不進)하던 성전 재건 사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로 말미

암아 다시 시작되었고 이런 순수한 신앙의 행위를 이방인들은 감히 방해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그 사역의 합법성만을 심문하고 최고 실권자의 조치를 기다리게 되었다.

(2) 그러나 본장에서 최고 실권자인 다리오 왕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신속히 완결짓도록 조치하였고 그리하여 성전 건축은 공사를 재개한 지 24일 만에(참조, 5장 ④7) 완공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다.

(3) 그리고 나서 다음 해 정월(正月)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즐거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때 여호와를 찾는 이방인들도 참여하였다.

(4)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에 의한 이스라엘 자손의 순수한 신앙 회복 및 영광을 보여 준다.

(5) 여기서 성도들이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고후 1:9).

(6)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은 곧 그 백성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참조, 시 125:1-5).

2. ㉠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 닷드내 등의 보고문을 받은 다리오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1절)

㉠ (1)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된 다리오 왕은(참조, 4:24) 보고문을 받은 후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국 내의 서적 공간을 조사하여 보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했다.

(2) 이러한 것이 본절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광대한 바사 제국 중의 자그마한 속국인 유다 도(道)의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한 다리오 왕의 이런 조치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물론 고대(古代) 동방의 제국들에서 종교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4) 즉 세상 나라들은 여호와 종교를 세상의 여러 종교와 상대화시키는 정도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생각하게 되면 참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5)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진의(眞意)를 파악하여 세상 풍조를 이기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여야 한다.

3. ㉡ 다리오 왕의 조치에 따라 조사하는 중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곳은 어디였는가? (2절)

㉡ (1) 왕의 명을 따라 조사하던 바사의 관리들은 메대 도(道) 악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2) 이 궁은 고레스 왕의 별장이었는데 그곳은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테헤란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해발 약 1,800m의 고지로 두루마리를 보관하기에 알맞는 기후를 가진 지역이다.

4. ㉢ 본장에 언급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과 1장에 언급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5절; 1:2-4, 7, 8)

㉢ (1) 본장에서는 건축의 규모 재정 지원 문제 등 행정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서 1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데 중점을 둔 포고의 형식이였다.

(2) 그러므로 1:1에 따라 본장은 고레스 당시에 내려진 조서의 내용이고 1장의 내용은 공포문의 내용으로 추정된다.

(3) 여하튼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그리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자손의 진실성이 입증되었고 왕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5)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거짓으로 꾸며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도 편견이 없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참조, 고전 15:12-15).

5. **㉠** 고레스에 의하여 내려진 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지을 성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3, 4절)

㉠ (1) 본장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규모면에 있어 더 크게 짓도록 지시된 것 같으나(참조, 왕상 6:2-10)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2) 그리고 통설(通說)에 의하면 이러한 고레스의 지시와는 다르게 규모가 축소되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왜소했다고 하나 그 규모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과 동등했고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6. **㉠**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6-12절)

㉠ (1)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후 이스라엘 자손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즐 뿐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더욱 신속히 행하도록 정치적, 경제적 원조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었다.

(2) 이러한 다리오의 조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종교심(10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 하지만 이런 조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4) 오늘날도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불신자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것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참조, 창 39:4; 출 12:35, 36).

7. **㉠** 다리오 왕이 취한 정치적인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6, 7절)

㉠ (1) 다리오 왕은 보고문을 올렸던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탈보스내와 그들의 동료 아바삭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 역사(役事)를 방해치 말고 예루살렘에 접근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 성전을 원래 있던 곳에다 건축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2) 이러한 다리오 왕의 조치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자들은 움추러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참조, 5:5).

(3)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어려운 지경에서도 과감히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참조, 5:1, 2)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려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참조, 딤후 1:12-14).

8. **㉠**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취한 경제적인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8절)

㉠ (1) 경제적인 조치는 성전 건축 경비를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서 걷는 왕의 세금(재산, 물품)에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2) 더우기 그 경비를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체치 말고 신속(迅速)히 주어서 성전 건축이 연기되지 않게 하도록 지시되었다.

(3) 사실 성전 건축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개할 만한 충분한 경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

우리 만무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다리오 왕의 조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 (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자.

9. **㉠**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하는 일 외에 특별히 지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9, 10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소용되는 번제물들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주라는 명령이었다.
 (2) 그리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바사 왕조의 안녕(安寧)을 기원토록 하였다.
 (3) 여기서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의 목적이 드러난다. 즉 인간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기 보다 자기 일신이나 혹은 가정,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것에 주의해야 한다.

10. **㉠** 다리오 왕은 어떤 사항을 추가로 지시하였는가? (11, 12절)

- ㉠** (1)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또한 자기 왕조를 위해 종교 행사를 치뤄 줄 것을 명령한 후에 이런 사항들을 번개시키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2) 즉 누구든지 다리오 왕의 이런 명령을 번개하면 그를 죽이고 또한 그 집을 몰살하도록 조치하였다.
 (3) 여기에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기원을 덧붙이고 그가 내린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을 신속히 하도록 다시 강조하였다.
 (4) 이러한 다리오 왕의 열심있는 조치는 시원찮은 신앙인이 흉내도 못낼 만큼 훌륭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5) 그러나 그런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이기 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11. **㉠** 저자는 형통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14절)

- ㉠** (1) 본서의 저자는 성전 건축 형통의 원인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고에 순응한 때문이라고 보았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당신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할 때 이방의 왕 다리오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도록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것이다(참조, 슥 6:15).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일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시 1:1-3).

12. **㉠** 재개된 성전 건축은 언제 필역(畢役)되었는가? (15절)

- ㉠** (1) 재개된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6년(B.C.516) 아달 월 3일에 끝나치게 되었다.
 (2) 자세한 것은 5장 **㉠** 7을 참조하라.

13. **㉠** 성전 봉헌식(奉獻式)은 누구에 의해 행해졌는가? (16절)

- ㉠** (1)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된 후 봉헌식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에 의해 행하여졌다.
 (2)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3) 이러한 봉헌식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이 넘쳤음이 분명하다.

명하다(참조, 22절).

- (4) 오늘날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봉헌하는데 그때마다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려야 한다(참조, 고후 9:7).

14. **㉠**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봉헌식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17절)

- ㉠** (1) 그들은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 수양 200, 어린 양 400을 제물로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2) 이러한 제물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한 것이지만(참조, 왕상 8:5, 62-64) 그들로서는 최고의 제물이었다(참조, 9절).
 (3) 또한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린 사실에서 비록 남은 자가 소수였고 거의 유다와 베냐민 자손 및 레위 지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전의 존재 의미를 깊이 자각하고 봉헌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 있다.
 (4) 사실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나 봉헌 제물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고서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성대한 종교 예식과 집회 그리고 많은 헌물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참조, 사 1:10-17).

15. **㉠** 성전 봉헌식을 행한 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18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봉헌식 후 제사장을 그 분반(分班)대로 또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참조, 대상 23-26장).
 (2)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종교와 혼합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3) 오늘날도 성도들은 아무런 원칙 없이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순결하게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참조, 마 10:16).

16. **㉠** 본서의 저자는 성전 봉헌식의 사실을 기술한 뒤에 어떤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가? (19-22절)

- ㉠** (1) 본서의 저자는 아달 월(종교력으로 12월) 성전 봉헌식에 대하여 기술한 후 곧 이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다음해 정월(正月) 14일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 여기서 저자가 이런 기사를 첨가시킴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절기 예배를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드렸음을 알게 하고 거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증하여 새롭고 영광스런 전진이 있는 언약 관계에 관심을 두게 한다.

17. **㉠** 유월절 행사는 언제 지켜졌는가? (19절)

- ㉠** (1)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정월(태양력으로 3, 4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2) 이러한 날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참조, 출 12:1-4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때때로 다시 살피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참조, 갈 5:1; 엡 2:1-10).

18. **㉠ 유월절 행사를 주도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20절)**

- ㉠** (1) 유월절 행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함으로 이러한 행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나타내었다.
 (2) 여기서 각종 종교 행사를 주도하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살피며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딤후5:22).

19. **㉠ 유월절 양은 누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는가? (20절)**

- ㉠** (1) 정결케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2) 이 양은 그들의 죄값을 치루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 양이었다.
 (3) 그러므로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4) 오늘날 성도들은 이 유월절의 희생 양을 잡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망하던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실현된 것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 **㉠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21절)**

- ㉠** (1) 그들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으로서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었다.
 (2) 여기서 이방인들 중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과 연합한 이방인에 대하여 길게 서술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3)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허락되었던 것으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부정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참조, 민9:1-14).
 (4)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구약 시대에도 전인류를 향한 것이었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21. **㉠ 이스라엘 자손은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켰는가? (22절)**

- ㉠** (1) 그들은 무교절을 유월절 다음날 곧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켰다.
 (2) 이러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참조, 출13:3-10).
 (3)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선전토록 하셨기 때문인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제 2의 출애굽을 경험한 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기간이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22. **㉠ 이스라엘 자손이 절기를 즐겁게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22절)**

-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큰 세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므로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세상의 권세자인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크게 도우셨기 때문이었다.
 (2) 즉 내적인 신앙심의 회복과 외부적인 조건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리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원인이 있다.
 (3)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절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참조, 시50:5-15)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명하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임으로 본절에서의 이 즐거움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 즐거움이었다.

(4) 결국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참조, 합3:17-19).

23. **㉠** 본서의 저자는 바사 왕 다리오를 어떻게 지칭하였는가? (22절)

- ㉠** (1) 본서의 저자는 다리오를 앗수르의 왕이라고 지칭하였는데 그것은 바사 제국이 앗수르의 옛날 영토까지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 (2) 그러나 저자는 바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인 포악했던 앗수르(참조, 시83:1-8)와 동일한 세력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파괴적이고 공포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그 대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순전한 신앙의 역사(役事),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와의 전역사(全役事)는 그분의 크신 은혜로 포악한 대적의 손길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손길로 변화시켰음을 주목해야 한다.
- (4)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크게 울려진다.

연구자료

제 2차 성전 건축 과정. 본장에 나타난 기록대로 봉헌식이 거행된 성전은(16절) 성전 건축의 역사에 의거해 제 2차 성전이라고 불리우거나 또는 건축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본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운다. 이제 그 건축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후 이스라엘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바벨론에 의해 훼파되었던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3:1-6).

2. 그 후 성전 건축 작업이 시작되었으니 이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 전의 지대가 놓여지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다(3:7-13).

3. 그런데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느 4:1-3)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다(4:1-5).

4. 이후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방해자들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열심을 잃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학 1:2-8)이었다(4:24).

5. 이 작업은 다리오(Darius) 왕 2년까지 중단되었으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의 격려 및 다리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재개되었으며 4년 후(B. C. 515)에 완성을 보았다.

제 7 장 에스라가 예루살렘 으로 귀환하다

단락구분 1-10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다 / 11-26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허락하다 / 27-28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頌祝)하다

1 이 일 후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2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 대손이요 아히들의 육 대손이요

3 아마라의 칠 대손이요 아사라의 팔 대손이요 므라못의 구 대손이요

4 스라히야의 십 대손이요 웃시엘의 십 일 대손이요 북기의 십 이 대손이요

5 아비수아의 십 삼 대손이요 비느하스의 십 사 대손이요 엘르아살의 십 오 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륙 대손이라

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7 아닥사스다 왕 칠 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칠 년 오 월 이라

9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 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1 여호와와 제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 조서하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

와 함께 갈지어다

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15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 가고

16 또 네가 바벨론 은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쓰지며

19 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21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이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22 은은 일백 달란트까지, 밀은 일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일백 밧까지, 기름도 일백 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없이 하라

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

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27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1. ㉠ 본장의 특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부터 비로소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본장에는 이 에스라의 족보와 그의 귀환을 허락하는 아닥사스다의 조서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의를 입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본장에서 거듭하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다', '완전하다' 라고 묘사되어 있고 또 그가 여호와와의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끝낸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케 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베푸시는 은혜를 세밀하게 느끼고 누리며 살아야 하겠다.

2. ㉠ 본서의 저자는 6장과 7장 사이의 공백 기간을 어떤 말로 메꾸었는가? (1절)

- ㉠ (1) 본서의 저자는 그 공백을 '이 일 후' 라는 말로 메꾸었다.
- (2) 그런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법으로(참조, 창 15:1; 22:1; 대하 32:1; 예 2:3:1) 중요한 사건이 없는 긴 기간을 그냥 넘겨 두고 건너뛸 때 사용되었다.
- (3) 그리하여 저자는 이 말로 6장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과 그 이듬해 있었던 유월절을 지킨 사건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할 때까지의(약 57년으로 추정됨)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있다.

3. ㉠ 이러한 기간의 공백기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1절)

- ㉠ (1) 본서의 저자는 '이 일 후' 라고 간략히 표현했으나 성전 봉헌과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의 긴 공백 기간 동안에 1차 귀환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은 아마 사망했을 것이고 선지자 학개나 스가라도 매우 연로(年老)했거나 사망했음이 분명하다.
- (2)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고 차츰 성전 건축할 때의 순전한 신앙은 희미해지면서 현실 생활에 안주(安住)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갔음이 분명하다(참조, 9:1, 2).
- (3) 그러나 바사 왕궁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아하수에로(Xerxes, B.C. 485-464)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중심한 사건이 있었고 부림절이 지켜지게 되었다(참조, 예 3:12-18; 9:31, 32).
- (4) 게다가 아하수에로를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Artaxerxes, B.C. 464-424)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12절).
- (5) 이러한 내·외의 정황하에서 에스라가 등장함을 주목해야 한다.

4. ㉠ 본서의 저자는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5절)

- ㉠ (1)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자신을 대제사장 아론에게까지 이르는 긴 족보를 소개하였다.
- (2) 그런데 이 족보는 대상 6:3-15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족보와 동일하나 그 명단의 수자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 (3) 즉 본장에는 아사라와 트라웃 사이에 아마라, 아히뭉, 사독, 아히마아스, 이사랴, 요하난 등 6명이 제외되어 있다. 이는 긴 명단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히브리인들의 족보 기록법에 따른 것이다.

- (4) 그러므로 본장의 몇 대손이라는 수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읽매일 필요는 없다.
- (5) 여기서 이러한 족보가 소개된 것은 에스라가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과 사독의 가계(家系)에 속하는 사람인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 (6)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준행토록 할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데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7)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정황을 섭리하시면서 그 가운데 필요하고 적절한 중을 준비시킴을 깨닫고 성도들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정황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주의하여 준비해야 한다(참조, 딤후 2:20, 21).

5. ㉠ 사독은 어떠한 인물인가? (2절)

- ㉠ (1)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참조, 삼하 8:17; 15:24-27; 왕상 1:39; 4:2-4).
- (2) 이와 같이 에스라는 전통적인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6. ㉠ 에스라의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미쳤는가? (5절)

- ㉠ (1) 에스라의 족보는 결국 대제사장 아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 (2)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에게까지 족보를 소급시킨 것은 에스라가 귀환하여 담당해야 할 사명 중 제사장의 직책에 대한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참조, 출 28:1-5).

7. ㉠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어떤 실력을 갖춘 자였는가? (6절)

- ㉠ (1)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學士)였다.
- (2) 이러한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의 순결한 신앙이 나타난 결과였고 그리하여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12절).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결한 신앙으로 실력을 갖춘 에스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
- (4) 여기서 바벨론과 같은 이방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혼잡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 (5)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다.

8. ㉠ 에스라는 어떤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가? (7, 8절)

- ㉠ (1) 에스라는 바벨론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뎨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참조, 8:1-20).
- (2)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성전 봉사직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8:1-14).
- (3) 한편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저자는 단순히 몇 사람이 올라왔다고 표현하였다.
- (4) 여하튼 세상 나라의 중심지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비록 지형적인 의미에서 높이 올라감으로써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골 3:1, 2; 히 11:13-16).

9. ㉠ 에스라와 그 일행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난 때는 언제인가? (7-9절)

- ㉠ (1)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B. C. 464-424) 7년 정월 초하루였다. 여기서 정월, 즉 니산월(참조, 느 2:1)은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3,4월경에 해당한다.
- (2) 그런데 정월 1일에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일에 출발했다기 보다는 그날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음을 나타낸다(참조, 8:15-30).
- (3) 그리하여 실제로 에스라의 일행이 바벨론을 떠난 것은 며칠 후인 정월 12일이었다(참조, 8:31).

10. ㉠ 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어떤 관점에서 회고하였는가? (9절)

- ㉠ (1) 에스라 일행의 여행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약 850km이지만 실제로는 지형상의 여건 등으로 약 1,440km 정도로서 소요 기간은 4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이러한 장거리 여행을 저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관점에서 그 여행을 회고하였다.
- (3) 물론 그 여행 기간을 위해 출발 전 여러 준비를 하였고 또 여행 중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을 터인데도 자기들이 노력한 것은 뒤에 감추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 (4) 이러한 자세는 신앙인이 인생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또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간직하고 고백해야 할 마땅한 태도이다(참조, 고전 15:10).

11. ㉠ 대제사장의 자손인 에스라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10절)

- ㉠ (1) 본절에서 에스라가 마음에 품었던 귀한 열심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遵行)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한 것이었다.
- (2) 에스라의 훌륭한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는 단지 모세의 율법에 지식으로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 (3) 또한 그는 자기 혼자만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보여 주신 율례와 규례를 깨달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 (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바른 신앙인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세히 연구하고 그 깨달은 바른 삶을 통해 실천하며 더 나아가 언약의 공동체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이어야 한다(참조, 시 1:1-6).

12. ㉠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내용의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도왔는가? (11-26절)

- ㉠ (1) 아닥사스다 왕은 ① 예루살렘으로 갈 의향이 있는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가라(13절), ②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 전역에 통치 원리가 되기 바란다(14, 25, 26절), ③ 에스라의 이스라엘 재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15-24절)는 내용의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도왔다.
- (2) 이러한 조서는 11절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소개말에 이어 그 주요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12-26절).
- (3) 그런데 이 조서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적인 용어의 사용이라든가(13절)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과 제물들에 관한 언급(17절) 및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의 성전 봉사 직책에 대한 언급(24절)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언어와 종교 제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
- (4) 이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던 것의 증거이며 조서 작성에도 에스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보여 준다(참조, 6절).
- (5) 이와 같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그의 평소 생활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크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6) 참으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므로써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눅 2:52; 벰전 3:1-4).

13. **㉠** 저자가 거듭하여 장황한 말로 에스라를 수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 ㉠** (1) 에스라는 본서의 저자로서 자신을 여호와와 제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겸 제사장이라고 거듭하여 수식했는데(참조, 6절)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2) 즉 에스라는 성전 재건 후에 미미했던(참조, ㉠3)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재건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필요한 지위와 능력을 다 구비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임을 밝힌 것이다.

14. **㉠**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바사 제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이었다.
- (2) 즉 아직도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치 않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강제로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자원하는 자들로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그의 결정이었다.
- (3)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강제로 될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에서 일어나와야 할 일임을 알 수 있다.

15. **㉠** 조서를 통해서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인 사항은 무엇이었는가? (15-24절)

- ㉠** (1)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의 회복과 제사 의식의 바른 시행이었다.
- (2) 이것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왕과 신하들이 드리는 은금과 바벨론 모든도(道)에서 얻을 은금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드릴 예물들로 제사 제물을 신속히 사서 제사를 행하라고 하였다(15-17절).
- (3) 또 성전에서 쓰이는 기명도 체사에 사용토록 주었고 필요한 비용은 무엇이든지 왕의 창고에서 취하여 사용토록 하였다(19-22절).
- (4) 게다가 성전 봉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겐 제국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세금도 면제토록 특혜를 베풀었다(24절).
- (5) 이렇게까지 하여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원조를 하였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막강한 어떤 신(神)을 두려워하며 그 신의 기분을 만족케 하여 신의 진노를 피하려는 이방인의 종교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23절).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행위들에 대해 조심하며 순결한 신앙을 간직하도록 주의해야 한다(참조, 단 3:13-18).

16. **㉠**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어떤 것이었는가? (25, 26절)

- ㉠** (1) 성전의 종교 행사에 대하여 길게 언급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에게 율법에 의숙한 관리와 재판관을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2)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 (3) 이는 에스라가 귀환하여 재건할 이스라엘 사회에 행정과 사법상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 본절에서 '강 서편 모든 백성'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25절)

- ㉠ (1) 여기서 강 서편이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말하지만 모든 백성은 강 서편 모든 지역의 백성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널리 흩어져서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그 뒤에 '그 알지 못하는 자'가 이교도들이 아니라 이교도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18. ㉠ 본서의 저자는 본장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27, 28절)

- ㉠ (1) 저자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하면서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 (2) 즉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하여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한 단계 나아가 행정과 사법상의 자치권도 얻게 되었다.
- (3) 그런데 이런 모든 조치들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루어 주신 일이었고(27절), 또 에스라가 왕과 모사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이 비록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미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사실을 에스라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명한 것이다.
- (5) 오늘날도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자신들 위에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참조, 시 138:1-8).

본장의 요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頭目)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8절).

연구자료

소금. 본장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때 파사(Persia) 왕 아닥사스다 1세(B. C. 464-424)는 왕의 내탕고(內帑庫)을 지키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귀환하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내주게 했다(11-21절). 그 재물의 목록 가운데 특이한 것은 소금이다. 지금은 흔하지만 예전에는 귀중품 가운데 속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귀절이다. 본고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소금과는 많이 다른 성경 속의 소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레 2:13)와 번제의 제물(겔 43:24)에 뿌려졌다. 그리고 '소금 구덩이' 같은 용어는(슘 2:9) 황폐한 땅이나 폐허화 된 땅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 도시를 정복한 군대는 그 도시를 저주하여 황폐케 한다는 상징적 의식으로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참조, 삿 9:45; 슘 39:6; 시 107:4; 렘 17:6). 선지자 엘리사는 좋지 못한 물에 소금을 던져 그 물을 좋게 만들기도 하였다(왕하 2:19-22). 오늘날의 아랍인들 관습에서도 친구 사이의 우정의 약속은 소금을 서로 선물함으로써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금이 약속 곧 언약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같은 소금의 언약적 의미는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순결하게 체결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운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민 18:19; 대하 13:5).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과 번제물에 필수적으로 소금을 넣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성경에는 어린아이에게 소금을 뿌린다는 말이 있는데(겔 16:4) 이는 근동의 풍습으로서 어린아이의 피부가 정결하고 강해지도록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위생학적인 처방은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예수께서도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막 9:50).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지혜롭고 사려깊어야 함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권면하였다(골 4:6).

무엇보다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 예수께서는 신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마 5:13) 이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다(참조, 엠 5:2; 살전 4:1).

제 8 장 예루살렘에 귀환한 무리들

단락구분 1-20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 / 21-23 출발 전에 아하와 강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 / 24-30 헌납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위탁하다 / 31-34 예루살렘에 안착(安着)하다 / 35-36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다

1 아달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계가 이러하니라

2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숨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3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라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일백 오십 명이요

4 바합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내니 그와 함께 한 남자가 이백 명이요

5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삼백 명이요

6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오십 명이요

7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칠십 명이요

8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더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팔십 명이요

9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백 십 팔 명이요

10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일백 육십 명이요

11 베배 자손 중에서는 베배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십 팔 명이요

12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일백 십 명이요

13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 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육십 명이요

14 비그왜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봇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더라

16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라와 므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17 가시냐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 형제 곧 가시냐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 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십 팔 명과

19 하사바와 드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20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 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이백 이십 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21 때에 내가 아하와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4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심이 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십 인을 따로 세우고

25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6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 오십 달란트요 은 기명이 일백 달란트요 금이 일백 달란트며

27 또 금잔이 이십 개라 중수는 일천 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이 두 개라

28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기록한 자요 이 기명들도 기록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29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31 정월 십 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2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 일을 유

하고

33 제 사 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34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35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 들이요 또 수양이 아흔 여섯이요 어린 양이 일흔 일곱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열 들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부치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전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귀환과 배경과 도착한 사실을 간략하게 서술했는데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체적으로 귀환을 위해 준비한 사항과 예루살렘에 안착(安着)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2) 그런데 본장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큰 도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들의 행로를 가려고 작정하며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철저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당시 점점 부패해 가고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 (4)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주변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걸음을 진행해야 한다.
- (5)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런 신앙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2. ㉠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온 족장들의 계보는 어떤 자들로 구성되었는가? (1-14절)

- ㉠ (1) 그 계보는 제사장들(2절)과 평민의 족장들(3-14절)로 구성되어 있었다.
- (2) 그런데 이곳에 소개된 열 두 가족은 곧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그러나 이들은 행로에 존재하는 위험을 무릎쓰고(참조, 31절) 자원하여(참조, 7:13) 고국으로 올라온 자들로서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신앙인들이었다.
- (4)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대할 때 연약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3. ㉠ 본장의 계보에서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2절)

- ㉠ (1) 그들은 아론의 세째 아들 비느하스의 자손인 게르숨과 아론의 네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인 다니엘이었다(참조, 출 6:23).
- (2) 그들은 하나같이 열정 있는 신앙인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4. ㉠ 다윗 자손 중에서 초두에 나온 자는 누구였는가? (2,3절)

- ㉠ (1) 그는 솔로몬과 스룹바벨을 통한 다윗의 왕통에 속한 핫두스였다(참조, 대상 3:10-22).

(2) 그런데 느 3:10에 하삽노야(Hashabniah)의 아들로 핫두스가 나오며, 느 10:5과 12:2에 같은 이름의 제사장이 나온다. 그렇지만 본질의 핫두스는 다윗 자손의 족장을 가리킨다.

5. **㉠** 바로스 자손은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가? (3절)

- ㉠** (1)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라와 함께 150명의 남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2) 그런데 바로스 자손은 1차로 귀환한 무리 중에서도 참여하였었다(2:3).
 (3)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은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6. **㉠** 아딘 자손 중에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6절)

- ㉠** (1)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함께 남자 50명과 그 가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였다.
 (2) 그런데 아딘, 엘람, 스바다 등의 자손들 중 대부분은 스톱바벨과 더불어 유다로 귀환하였다(참조, 2:4, 7, 15).
 (3) 그럼에도 또다시 그런 지파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림으로 고국에 돌아갈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4) 그러나 이런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실 때 분연히 일어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5)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즉시 와야 한다(참조, 말 4:6; 고후 6:1, 2).

7. **㉠**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등은 누구의 자손이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아도니감 자손이었는데 이제까지의 기술 형식과 달리 세 사람이 그 지파를 대표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아도니감 자손에 대하여 말할 때는 ‘나중된 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온 가문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첫째로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들을 일이다.

8. **㉠** 에스라가 아하와 강변에서 무리를 모으고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15-20절)

- ㉠** (1) 그것은 긴 여행을 위하여서 무리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이었다.
 (2) 그리하여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留)하며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을 점검하였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자손은 한 명도 없는 것을 에스라는 발견하였다.
 (3) 여기서 에스라는 무리들 중 족장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명부(名簿)에 기록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서 가장 중요시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일이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法度)대로 주의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시 119:9-16; 엡 5:15, 16).

9. **㉠** ‘아하와’는 어디에 위치해 있던 곳인가? (15절)

- ㉠** (1) 아하와는 문맥의 전후 관계로 볼 때 바벨론에 인접해 있던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나 운하 지역을 가리킨다.
 (2) 그러나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다만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로 추정된다.

10. **㉠** 에스라의 지시에 따라서 모인 무리의 족장들과 지혜가 있는 명철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6절)

- A** (1) 그들은 엘리에셀(하나님은 나의 도움), 아리엘(하나님의 사자), 스마야(여호와께서 들으심), 엘라단(하나님이 주심), 야립(여호와가 대신 싸우심), 엘라단(하나님이 주심), 나단(주신다), 스가라(여호와가 기억함), 므슬람(잡는다), 요야림(여호와가 대신 싸우소서), 엘라단(하나님이 주심)이었다.
- (2)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신앙은 자신과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앙은 환경과 시대가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11. C 에스라는 무리의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17절)

- A** (1) 에스라는 그들을 가시바 지방의 족장인 잇도에게 보냈다.
- (2) 여기서 가시바라는 지방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전혀 없으나, 그곳은 아하와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음이 분명하다.
- (3) 그리고 이 가시바에는 레위 자손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거룩한 성소가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곳에는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 정착하여 있었고 '잇도'는 그 지방의 족장으로서 그들 중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에스라는 족장 잇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 들 자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 (5) 이러한 일은 에스라가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형편에 대하여 밝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 주며 그런 지식을 근거로 사람 얻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신중하게 처리 하되 특히 사람을 택하는 면에 더욱 그리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참조, 딤펢전 3:1-13).

12. C 에스라가 성전 봉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올 때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18-20절)

- A** (1) 에스라는 자기의 지혜를 다 써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잇도에게 보내어 레위 자손들과 느디님 사람을 데려왔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 (2) 그러므로 이러한 에스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므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과 세레바(참조, 24절; 느 8:7; 9:4; 10:13; 12:24) 하사바(24절; 느 10:12; 12:24) 등 40여 명의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귀환하는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경영할 때에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다(참조, 잠 16:1).

13. C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에게 주어 수종들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20절)

- A** (1) 그들은 느디님 사람이었는데 느디님(Nethinims)의 뜻은 '주어진 자들'로 '주다', '시키다'는 의미를 지닌 파생한 히브리어 <나탄>에서 파생한 말이다.
- (2)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천한 직무를 하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며 이들은 외국인 혈통의 사람들이었다(참조, 수9:16-21; 대상 9:2).
- (3)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술에 따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등으로 나뉘었는데 이러한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과 조심스럽게 구분되기는 하나 그들도 이스라엘 회중으로 간주되었다(참조, 느 10:38).
- (4) 이러한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얻는 것이 혈통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참조, 요 1:11-13).

14. **㉠**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禁食)을 선포한 것은 언제인가? (21절)
- ㉠** (1) 에스라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데려와 그 이름을 다 기록하여 인간적인 출발 준비를 완료한 때에 금식을 선포하였다.
- (2) 이러한 자세는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가 완벽한 듯해도 그 경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그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정당한 태도였다.
- (3)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다(참조, 잠 3:6).
15. **㉠**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21절)
- ㉠** (1) 그들이 간구한 내용은 자신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가 먼 여행 길에 모두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 (2)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들이 여행 기간 중에 필요한 모든 세세한 사항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몇 마디로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3) 여기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인생의 행보(行步)에 있어 세밀한 일까지도 다 주께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16. **㉠** 에스라와 그 일행이 스스로 겸손하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자기들의 행보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22절)
- ㉠** (1) 그 이유는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아뢴 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헛된 말이 아님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었다.
- (2)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歷史)를 통해서 뚜렷하게 입증된 것이고 당시 바벨론에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
- (3)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긴 귀환의 여정(旅程)에 산적해 있는 위험과 적군의 위협에 대하여 아닥사스다에게 군대를 청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였다.
- (4)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와 그 일행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여호와 종교의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었다.
- (5)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여 안전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의 안전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므로 마땅히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조, 롬 13:11-14).
17. **㉠** 에스라와 그 일행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23절)
- ㉠** (1)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를 거부한 에스라와 그 일행의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락(應諾)하심을 입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중에 대적들과 길에 매복(埋伏)한 도적들이나 원수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졌다(참조, 31절).
- (2)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만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참조, 빌 4:6).
18. **㉠** 금식 기도로 출발 전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한 에스라는 예물

에 대하여 어떤 방책(方策)을 사용했는가? (24-30절)

- Ⓐ (1) 에스라는 그들의 행로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예물들(25절)을 제사장 중 12인의 지도자와 레위인 중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세워서 행로 중에 잘 간수하도록 맡겼다.
- (2) 여기서 에스라는 그 물건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이므로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겼고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하에 예루살렘까지 운송토록 하였다(28, 29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자에게 맡길 줄 아는 자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의 지혜와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할 일을 하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19. Ⓒ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긴 예물의 양(量)은 얼마나 되었는가? (26, 27절)

- Ⓐ (1) 그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이며, 금이 100달란트요, 금잔이 20개였고,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였다.
- (2) 여기서 그 환산의 비율이 확실하지 않아서 오늘날의 측정 기준으로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여하튼 대단히 많은 양의 금과 은 그리고 기명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될 것이었다.
- (3) 그런데 이 예물들은 성심으로 즐거이 드린 것들이므로(참조, 7:15, 16) 그 양의 문제보다는 드린 중심을 귀하게 보아야 한다.
- (4)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헌금을 드리는 중심(中心)을 보기 보다는 그 액수를 중히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은 이런 풍조에서 속히 떠나서 중심으로 아낌없이 헌금을 드려야 한다(참조, 막 12:41-44).

20. Ⓒ 에스라와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른 때는 언제인가? (31, 32절; 7:9)

- Ⓐ (1)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정월 1일에 떠날 각오를 하고 여행 준비를 하여 그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다(참조, 7장 Ⓒ 9).
- (2)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셔서 여러 대적과 길에 매복(埋伏)하여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던 자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받아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참조, 7:9).
- (3) 이렇게 하여 무려 4개월이 넘게 걸린 험난하고 긴 여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무사히 그 목적을 이루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안착(安着)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험난한 인생 길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언제나 안전하다(참조, 시 23:1-6; 고후 5:1-7; 히 12:22, 28).

21. Ⓒ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에스라와 그 일행은 가지고 온 예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32-34절)

- Ⓐ (1) 에스라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쉬어 긴 여로(旅路)의 피로를 풀고 난 후 제 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할 때 그 수량을 쟀 예물들을(26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앞에서 다시 달아서 그 수량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책에 기록하여 성전에 드렸다(참조, 30절).
- (2)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한 에스라와 그 일행의 태도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것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취급하여 인간의 더러운 욕심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 준다.

(3)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잘못된 인간 욕심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참조, 행 5:1-11).

22. **㉠ 에스라와 그 일행이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의 내용은 어떠한가? (35절)**

- ㉠** (1) 본문에서 에스라와 그 일행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묘사되었는데 과연 그 말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 (2) 그런데 그 번제물의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 수양 96, 어린 양 77, 속죄제의 수염소 12 등으로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다.
- (3) 여기서도 귀환한 무리는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위해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림으로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4) 여하튼 이렇게 하여 에스라와 그 일행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며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헌신을 나타내었다.
- (5) 이와 같이 자신들이 형벌받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본받아야 할 귀한 모습이다(참조, 히 10:39).

23. **㉠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어떤 일을 하였는가? (36절)**

- ㉠** (1) 에스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참조, 7:12-24)를 지방 장관들인 왕의 관원과 유프라테스 강 서편 바사 제국의 총독들에게 전달하였다.
- (2) 그리하여 그 관원들과 총독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갖 편의를 돌보아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됨이 없도록 도와 주었다.
- (3) 이러한 이방 총독들과 관원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성전의 일을 도우는 것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결하게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신 결과였다(참조, 21-23절; 7:6).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선으로 갚으신다(참조, 22절).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결하게 그 신앙을 보존해야 한다(참조, 제 3:7-13).

본장의 요절

'정월 십 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1절).

제 9 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다

탄락구분 1-2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에스라에게 알려지다 / 3-4 에스라가 근심 중에 힘을 잃다 / 5-15
에스라가 근심 중에 기도를 하다

1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3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뜰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7 우리의 열조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간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궁핍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주셨나이다

10 우리 하나님이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1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일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12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14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고 있는 이방 족속과의 연혼(連婚)에서 비롯되는 죄악을

듣게 되었다.

- (2) 이러한 소식은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 공동체로 순결하게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3)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근심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해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탄식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 (4)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순결한 신앙과 그에 반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엿보게 되며 이러한 죄악에 대해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에스라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된다.
- (5)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간직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오늘날 팽배해 있는 교회의 악습과 죄악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참조, 계 3:1-6).

2. **㉠**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나아온 때는 언제였는가? (1절)

- ㉠** (1) 본문에서 그때를 ‘이 일 후에’ 라고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 (2) 그러나 앞 뒤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온 때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5월(참조, 7:9; 8:31-36)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9월 중순경임이 분명하다(참조, 10:1, 8, 9).

3. **㉠** 에스라에게 나아온 방백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1절)

- ㉠** (1) 본문에는 에스라에게 나아온 방백들에 대하여 상세한 묘사가 없는데 추정컨대 그들은 당시 유다 도(道)의 여러 지방 관리 중(참조, 2:1) 연혼(連婚)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던 자들이 분명하다(참조, 2절).
- (2) 이러한 방백들이 소수였겠지만 이제 바사 제국의 정치적 지원(참조, 7:25, 26; 8:36)을 얻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에스라에게 그들의 신앙 중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간언(諫言)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 사실에 대해 토로(吐露)하였다.
- (3)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패와 범죄가 창일(漲溢)한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인들이 남아 있었다.
- (4) 오늘날도 역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수월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의 세력이 팽배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죄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10:16; 딤후 2:18, 19).

4. **㉠** 방백들의 말을 통해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1, 2절)

- ㉠** (1) 에스라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은 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이었는데(참조, 2:1-70) 이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 백성과 연합하여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행하고 연혼(連婚)하여 이방 족속과 섞이는 죄악을 범하였다.
- (2) 더우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민족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책략으로 이방인과 연혼(連婚)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며 죄악을 범하였다(참조, 느 6:17-19).
- (3) 이러한 죄악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수치의 원인이었는데 또다시 이런 죄악을 범하는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목이 끈은 완고한 자들이었다.
- (4)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들보다 더 세상과 짝하는 죄악에 빠져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 내어야 하며 또한 사회적인 불의(不義)와 타협하는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참조, 고후 6:14-18).

5. **㉠** 방백들이 언급하고 있는 연혼(連婚)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방 족속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1, 2절)
- ㉡** (1) 그 이방 족속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었다(1절).
- (2)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실제로 가나안 종족의 여인들과의 결혼만이 금지되어 있었다(참조, 출 34:16; 신 7:3).
- (3)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모든 족속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여기에 모압이나 암몬 애굽인들도 예외일 수 없었다.
- (4)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해했던 (2)의 금지령은 주변 모든 족속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했다.
- (5) 여기서 우리는 이방 족속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이 무조건적이고 배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결한 여호와의 백성을 보존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6. **㉠**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하여 듣고 에스라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3절)
- ㉡** (1) 에스라는 자기의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백성의 죄악에 대한 그의 슬픔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참조, 수 7:6).
- (2)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에스라를 망연 자실(茫然自失)하여 맥없이 주저앉게 만들었다.
- (3) 그러나 이러한 에스라의 태도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과연 오늘날 형제의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슬픔과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7. **㉠** 슬퍼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모여 온 자들은 누구였는가? (4절)
- ㉡** (1)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에스라에게로 모여 왔다.
- (2)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특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의 죄를 인하여 에스라와 동일한 심정으로 슬퍼하며 분노하는 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 (3) 이와 같이 에스라의 슬픔과 분노는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로 인하여 실망한 중에서도 위로를 얻게 하였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죄와 싸우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조자들을 통해 위로하신다(참조, 고후 7:5-7).
8. **㉠** 진실한 동조자를 통해 위로받은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 (4, 5절)
- ㉡** (1) 에스라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힘을 잃고 계속 주저앉아 있었는데 성전에서 저녁 제사(祭祀) 드릴 때가 되자 그 근심 중에서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렸다.
- (2)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는 범죄 중에서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바른 기도였다(참조, 잠 24:16).
- (3)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한 것이었다.
- (4) 그러므로 에스라는 죄중에서도 참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완악하여지지 말고 자기들의 죄악을 솔직하게 내

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여야 한다(참조, 요일 1:5-10).

9. **㉠** 에스라가 고백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과 허물은 어느 정도였는가? (6절)

- ㉠** (1)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중한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이 뜨뜻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2) 더우기 에스라는 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발골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서 넘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허물이 너무도 커서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고백하였다.
 (3) 여기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실증적으로 드러난다(참조, 롬 3:9-18).

10. **㉠** 에스라는 이스라엘 열조의 멸망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는가? (7절)

- ㉠** (1) 에스라는 이스라엘 열조의 멸망이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다.
 (2) 즉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는데(참조, 8:22) 이스라엘 자손은 열조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여 패역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방 열왕의 손에 붙혀졌고 멸망을 당했다고 보았다.
 (3)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적용되어진다. 따라서 성도들은 진노를 당하기 전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살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善)을 누리며 살아야겠다(참조, 요 1:10-14, 16).

11. **㉠**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멸망과 부끄러움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서는 범죄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자손을 버려 두시지 않고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 두어 멸망을 피하게 하셨다(참조, 함 3:2).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종노릇하는 중에도 바사 열왕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입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역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참조, 시 86:15; 엡 2:7).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명령을 지킴으로 우상 숭배에 감염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때 왕성하여 그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
 (2)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죄악과 상관없이 그 땅에서 왕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歷史)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축복을 거부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 결혼은 끊임없이 지탄받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된 것이었다.
 (4) 여기서 하나님의 금령(禁令)은 단순한 금지 이상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자세히 살피서 그 약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119:1-8).

13. **㉠** 에스라의 기도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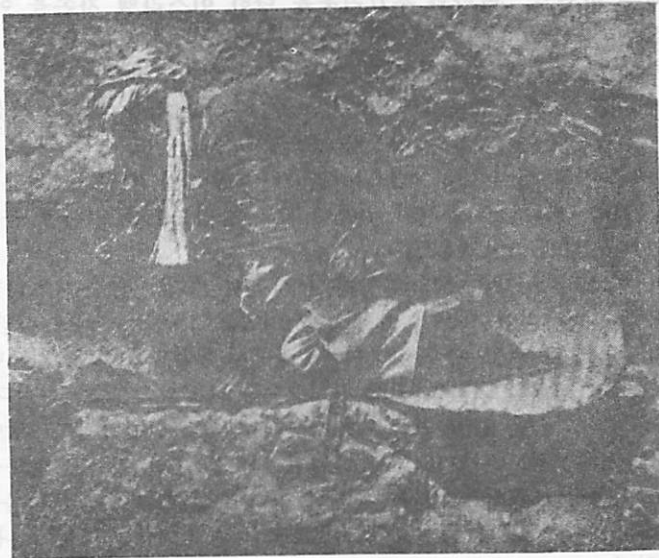
- ㉠** (1) 에스라는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했음을 회고한 후에 당시 그들의 죄악을 매우 심각하게 자책하면서 (13, 14절)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다.

- (2) 그리하여 이제 에스라는 기도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약속하신 언약대로 다 행하셨으므로 의로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 (3)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끝까지 범죄하여 에스라 당시에도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자복(自服)하였다.
- (4) 이 결론 부분은 앞부분의 기도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의 심각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에스라의 중심을 보여 준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오늘날도 죄의 심각함에 대하여 깊이 통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롬 7:24, 25).

화보자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래의 사진은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회교도의 모습인데 그들의 성지인 메카(Mecca)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다.



우상 숭배와 이방 족속과의 혼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0년 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국하자마자 다시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는 죄를 범하였다 (2절). 에스라의 기도는 (5절)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무감각을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연구자료

구약에 나타난 신앙 회복 운동

성도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갈 5:24)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사는 자들이다(고전 10: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탄한 길, 즉 육체의 소욕(所欲)을 따라갈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다. 본고는 구약에 나타난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세상을 쫓아간 실수를 범하고 난 후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승화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교훈과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개인적인 신앙 회복 운동

① 아브라함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벨엘에서 단(壇)까지 쌓은 그는(창 12:8) 가나안에 닦친 기근을 피하여 이방 땅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였다. 왜냐하면 사래의 미모가 출중한 연고로 사래를 아내라고 하면 그녀의 미모를 탐낸 애굽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창 12:11-13). 결국 이런 사실은 탄로나게 되었고 이를 질책하는 바로 앞에서 그는 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가(히 11:8) 자신에게 닦친 '기근'이라는 환경적 시련을 피하기 위해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잘못과(참조, 사 31:1)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이방인의 가혹한 질책뿐이었다. 이러한 질책에 대한 그의 '무응답'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신앙의 극복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스로의 반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으로 인해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창 17:5)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게 되었다.

② 다윗 : 통일 왕국의 2대 왕이기도 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등(삼상 17:47) 그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 그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간음죄를 저질러 그녀에게 불륜의 씨앗을 가지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최전선에 내보내 죽

여 버리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가 이처럼 비열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숭고한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그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데 있다. 즉 그는 그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달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삼하 12:1-14). 이때에 그가 쓴 시가 구구 절절이 회개의 자국으로 얼룩진 시 51편이었다.

(2) 국가적인 신앙 회복 운동

① 미스바 회개 운동 : 삼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는 사건이 나온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상태에 있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사무엘은 미스바 소집령을 내렸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고, 그 언약 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블레셋의 압제를 단호히 배격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포했다. ㉠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뭇을 너희 중에 제하라 ㉡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것은 곧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생활 그 자체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교훈한다. 이러한 명령을 백성들은 그대로 지켰고 이로 인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②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 남유다 왕국의 제 16대 왕인 요시아는 26세, 즉 그의 통치 18년(B. C. 621) 되던 해부터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목적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전역에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를 일소함으로써 인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자는 데 있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열왕기 저자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5)라고 극찬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출발점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그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그 말씀에 냉철히 비추어 보면서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준행한 데 있다(왕하 22:11; 23:24).

이와 같이 개인이든 국가이든 간에 타락의 길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참조, 요일 1:9).

제 10 장 개혁(改革)이 진행된다

단락구분 1-4 에스라가 자복(自服)할 때 백성들이 개혁을 제안하다 / 5-15 총회가 소집되다 / 16-17 개혁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 18-44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의 명단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3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시라

5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6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7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9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삼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구월 이십 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를 인하여 떨더니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12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

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15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파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저희를 돕더라

16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시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8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19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20 또 임벨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댤요

21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22 바스홀 자손 중에는 엘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23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24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뮐렘과 우리였더라

25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중 라야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26 엘람 자손 중 맛다냐와 스가라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27 샷두 자손 중 엘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야요

28 베배 자손 중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요

- 29 바니 자손 중 므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 30 바합모압 자손 중 앓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냐와 브사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 31 하림 자손 중 엘리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 32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 33 하숨 자손 중 맛드내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 34 바니 자손 중 마아대와 아르람과 우엘과
- 35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 36 와냐와 트레못과 에라십과
- 37 맛다냐와 맛드내와 야이수와
- 38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 39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 40 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 41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 42 살룸과 아마라와 요셉이요
- 43 느보 자손 중 여이엘과 맛디디아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 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1. ㉠ 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1) 에스라의 큰 슬픔과 자복(自服)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 뜻있는 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이에 많은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되었다.
- (2) 그리하여 모인 무리 중 스가냐가 율법대로 당시의 부패와 죄악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므로 백성들의 총회가 모여 에스라의 지도하에 개혁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그중에는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
- (3) 그러나 대부분은 개혁에 찬동하였으므로 에스라는 종족을 따라 조사 위원을 위임(委任)하여 이방 여인을 취한 자를 조사하였고 본장의 마지막에 그 명단을 기록하였다.
- (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한 이스라엘 자손의 개혁은 먼저 지도자 에스라의 통회(痛悔)와 자복으로부터 시작되어 전백성에게 파급되었다.
- (5)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는데 있어 지도자의 자각(自覺)과 그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깨달음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2. ㉠ 에스라는 어디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는가? (1절)

- ㉠ (1)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에 대하여 듣고 슬픔과 근심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 앞’ 나아와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다.
- (2) 물론 에스라 당시에는 스킴바벨과 그의 동류들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에스라는 기도하였을 것이다.
- (3)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의 전 앞’이라고 표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 (4) 이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전인격이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약 4:10).

3. ㉠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무엇을 자복하였는가? (1절)

- ㉠ (1) 본문에는 단순히 ‘죄’를 자복하였다고 기록했다.
- (2) 그런데 앞장을 통해 볼 때(참조, 9장) 에스라가 자복하는 죄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 우상 숭배하며 이방인과 연혼(連婚)하던 자들의 죄임을 알 수 있다.
- (3)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또 특히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자기가 지은 것과 다름없이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함을 본다.
- (4)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한 명의 성도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몸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형제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같이 여기고 슬퍼하며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참조, 마 6:12, 13; 벰전 2:5, 9).

4. ㉠ 에스라가 통회 자복(痛悔自服) 할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4절)

- ㉠ (1)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였고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심히 통곡하였다.
- (2) 그리고 그런 백성들 중에서 스가나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을 굳게 하고 당시의 부패와 죄악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3) 에스라의 통회 자복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개혁하지는 제안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 (4) 그러나 이것은 에스라의 이런 자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권고한 결과였음을 또한 생각해야 한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소원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참조, 요일 3:16).

5. ㉠ '스가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2절)

- ㉠ (1) 본문에는 스가나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었다.
- (2) 그런데 본서에는 엘람 자손에 대해 3번 언급되고 있는데(참조, 2:7, 31; 8:7; 10:26) 그들은 탁월한 인물이나 제사장들이 아닌 평민들이었다.
- (3) 그리고 엘람 자손 중에도 이방 여인을 취한 자가 있었으나(26절) 본질의 스가나는 평민으로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거룩한 열심을 가진 자였다.

6. ㉠ 스가나는 어떠한 말로 에스라에게 권고하였는가? (2-4절)

- ㉠ (1) 심히 통곡하던 백성들 중에서 스가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악을 개혁할 때 소망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에스라가 이 개혁의 일에 앞장서기를 권고하였다.
- (2) 이 스가나의 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던 음성을 듣는 듯하다(참조, 사 31:6; 44:12; 렘 3:22; 4:1; 욥 2:12, 13; 숙 1:3; 말 3:7).
- (3) 이런 것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선지자들이 외치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간직하던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스가나는 평민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로 인해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악을 고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언약 관계를 회복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다.
- (5)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어떤 인간의 사상과 이론에 따라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부패와 죄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7. ㉠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3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고(참조, 창 17:1-18)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언약 관계는 파괴되지 않았다.
- (2) 단지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범죄할 때 징벌을 당하였던 것이다.
- (3) 그리하여 그들은 범죄 중에서도 '내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 (4)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 관계에 따라 당시의 그들의 죄악을 고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세와 생활을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러한 개혁은 이미 모세를 통해 제시해 준 모세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그 생활을 개혁해야 한다(참조, 빌 2:12; 골 3:1-10).

8. **㉠**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서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5절)

- ㉠** (1)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던 에스라는 이러한 스가냐의 제안과 격려의 말을 듣고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개혁의 제안을 동의하고 그것에 맹세케 하였다.
- (2)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개혁의 일이 전백성에게 미치는 일이 되게 하였다.
- (3)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전체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9. **㉠** 에스라의 말대로 우리가 맹세한 후 에스라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5, 6절)

- ㉠** (1) 에스라는 백성들이 맹세하는 말을 들은 후 하나님의 전 앞 뜰에서 일어나서 성전 귀퉁이에 있는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 (2) 그곳에서 에스라는 사로잡혔던 자, 즉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 근심을 멈추지 않고 더욱 근심하며 떡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에도 돌입하였다.
- (3)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철저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백성들의 맹세의 말을 듣고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혁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였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참조, 마 7:21).

10. **㉠** ‘여호하난’은 어떤 인물인가? (6절)

- ㉠** (1) 본문에 나오는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은 느 12:23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하난과 동일 인물은 아니고 그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는 개인의 이름으로 간주하는 편이 옳다.
- (2) 그는 추측컨대 대상 24:12의 엘리아십의 후예인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방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일 것이다.
- (3) 그리고 본문의 여호하난의 방은 성전의 바깥 건물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준비방들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 방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명칭이 붙여진 방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11. **㉠**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7, 8절)

- ㉠** (1)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포를 하였다.
- (2) 즉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집합할 것과 또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어기고 모이지 않는 자에게는 재산을 빼앗고 이스라엘 자손의 공회에서 축출하리라는 것이었다.
- (3)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개혁에 동참토록 하였다.

12. **㉠** 지도자들의 공포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때는 언제였는가? (9절)

- ㉠** (1) 공포의 내용대로 3일 후인 9월 20일(참조, 9장 **㉠** 2)에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전 앞의 광장에 모였다(참조, 느 8:1,3,6).
- (2) 그런데 이스라엘의 9월은 우리의 제절로는 12월에 해당하는데 이때 찬비가 일반적으로 억수같이 퍼붓곤 했다고 한다.

(3) 그리하여 모인 백성들이 위협적인 공포의 내용과 찬비로 인하여 떨게 되었다.

13. **㉠** 에스라는 모인 군중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였는가? (10, 11절)

- ㉠** (1) 금식하며 기도하던 에스라는(6절) 모인 군중들에게 이방 여인을 취한 범죄의 사실을 지적하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 (2) 이러한 에스라의 질책(叱責)과 권고는 단순히 종족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한 정도의 차원에서 나온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 (3)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오늘날과 같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 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보존이 우상 숭배의 감염으로 심각한 위협을 당하던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 (4)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암적인 존재인 이방의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했고 그 우상 숭배의 매개체인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 버려야 했던 것이다.
- (5) 혹자는 이것에 대해 너무도 몰인정한 처사라고 비판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점할 수 없는 거룩한 의의 나라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처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6) 따라서 에스라는 광신적인 율법주의자나 종족의 순결에 대해 안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대해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였다(참조, 7:6, 10, 11, 12, 28; 8:21, 22; 9:2; 3, 15).

14. **㉠** 에스라의 권고에 대하여 모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2-15절)

- ㉠** (1) 모인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즉 에스라의 권고에 따라 행하되 일이 너무 방대하므로 이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백성들 대부분의 긍정적 반응과 소수지만 그 일을 반대하는 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
- (2)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사회가 어는 정도까지 심각하게 부패하였는가를 말해 준다.
- (3) 즉 그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과 부패가 전체 백성에게 미친 광범위한 것임은 물론 심지어 그러한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까지 있었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일제 시대 말기에 한국 교회가 범했던 신사 참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5) 즉 당시 조선 교회는 전총회적으로 신사 참배를 가결하여 동방 요배(東邦遙拜)를 하며 일제의 천조 대신을 국가적 요식 행위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 (6) 그 후 해방이 되었을 때 이러한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옥중 성도들의 권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하여 뉘우쳤으나 기성 교단의 교권을 잡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을 독선이라 하며 반대하였던 것이다.
- (7) 이러한 부패의 잔재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도들은 명심해야 한다.

15. **㉠**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무리가 내놓은 제안은 무엇이 있었는가? (12-14절)

- ㉠** (1) 그들은 큰 소리로 에스라의 권고가 옳다고 긍정하며 에스라의 권고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하였다.
- (2)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그런 개혁의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심히 컸으므로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방백들을 세워서 자세히 조사하여 진행시키자고 제안하였다.
- (3) 그리고 그런 조사 후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은 장로들과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고 그

런 죄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자고 하였다.

- (4) 이리하여 백성들의 맹세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5) 이렇게 죄악과 부패에서 떠나 개혁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동의하여 행하여야 한다(참조, 시 51:9-13).

16. ㉠ 개혁을 위한 조사의 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가? (16, 17절)

- ㉠ (1) 에스라는 백성들이 제안한 대로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세워 조사의 책임을 맡겼는데 그 일은 10여일이 지난 후(참조, 9절)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해 1월 1일까지 계속되었다.
 (2) 즉 이방 여인을 취한 자를 조사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이 걸렸다.
 (3)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참조, 12:64) 이렇게 조사 기간이 3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보아 조사하는 일이 신중하게 처리되었음이 분명하다.
 (4) 이와 같이 죄악과 부패를 개혁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7. ㉠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누구였는가? (18-22절)

- ㉠ (1) 제사장 중에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은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네 형제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 가계 사람들 모두이다(2:36-39).
 (2) 여기서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처음으로 했던 말(참조, 9:12), 즉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연혼(連婚)하는 죄악을 범하는 데 앞장선 사실이 증명된다.
 (3) 이와 같이 당시에는 비록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별(聖別)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며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지도할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많았다.
 (4)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된 자들이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본다(참조, 마 7:15; 고전 5:11; 약 4:4).

18. ㉠ 본문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의 수효는 어느 정도였는가? (18-44절)

- ㉠ (1)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제사장 자손 중 18명, 레위 사람 중 10명, 그리고 평민 86명 등 포함 114명이나 되었다.
 (2) 이런 통계를 보면 당시 연혼(連婚)의 문제는 지도층인 제사장 자손들을 포함해서 성전 봉사 계층인 레위인들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의 계층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그 후 이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혈연적인 정을 끊으면서까지 죄악을 고치려 했던(참조, 14, 19절) 칭찬할 만한 자들이었다(참조, 15절; 9:1, 2; 느 6:18; 13:23, 24, 28).

19. ㉠ 본문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떠났는가? (19, 44절)

- ㉠ (1) 그들 중에는 비록 자식까지 낳은 사람이 있었지만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두 다 손을 모아 맹세하여, 즉 언약을 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쫓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떠나게 하였다.
 (2) 또 그 가증한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정결케 된 문둥병자나 범죄한 나실인이 드리는 속건 제물을 드렸다(참조, 레 14:12, 21; 민 6:12).
 (3) 이렇게 하여 그들은 범죄한 데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4)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누우치는 일은 잘하나 그 죄악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일은 소홀히 한다. 참다운 신앙을 소유하려면 이런 것을 심각히 생각하여 죄악에서 떠나는 일에 과감해야 한다(참조, 딤후 2:19; 히 12:1, 4).

연구자료

페르시아(Persia)

페르시아는 본서 뿐 아니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사(記事)의 배경이 되는 나라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던 자이다(1:1-4).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였던 자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였던 것 같다(느 2:1-6). 한편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자이며 유대인들을 하만으로부터 보호했던 왕이다(에 2:17; 8:3-17). 이러한 인물사적(人物史的)인 배경 외에도 페르시아는 유대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빛과 어둠, 선과 악 등의 대립적 사고 체계가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개념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참조, 요 3:19-21). 또한 페르시아는 한때 서남 아시아 지역의 패권(霸權)을 장악하여 대제국으로서의 위엄을 떨치기도 하였으나 후에 쇠퇴의 길을 걷다가 다시금 서서히 국력을 회복하여 오늘날에는 이란(Iran)이라는 이름으로 국명을 바꾸고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페르시아의 1. 국명 2. 위치 3. 역사 4. 문화의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려 한다.

(1) 국명

‘페르시아’(Persia)라는 국명은 개역 성경에 ‘바사’로 번역되어 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스>, 구페르시아어로는 <파사>, 그리고 헬라이어로는 <페르시아>, <페르세스>, <페르손> 등으로 불리웠던 이 국명은 현대에 이르러 레자 샤 팔레비(Reza Shah Pahlavi, 1925-1941)에 의해 ‘이란’(Iran)으로 개명되었다.

(2) 위치

서남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페르시아는 지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즉 그 국경은 북쪽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카스피 해(Caspian Sea)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페르시아 만과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오만 만(Gulf of Oman)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서쪽 국경은 이라크(Iraq)와 터어키(Turkey)에 맞닿고 있으며, 동쪽 국경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서파키스탄(West Pakistan)에 맞닿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란이라는 지명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과 아울러 통상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서파키스탄, 발루키스탄(Baluchistan)을 합한 지역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3) 역사

대부분의 페르시아인은 코카서스 종족이며 그 외에도 유대-페

르시아인 사이의 혼혈인 및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페르시아의 역사는 B.C. 6000년 이전부터 시작된 선사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고는 B.C. 675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만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B.C. 675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테이스페스(Teispes)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파르사의 왕으로 봉해진 아리아라마나(Ariyaramna)와 안산의 왕으로 봉해진 고레스 1세(Cyrus I)이다. 이 고레스 1세의 손자인 고레스 2세가 바로 본서에 나오는 '바사 왕 고레스'(1:1)인데 그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후의 왕권은 캄비세스 2세(Cambyses II, B.C. 530-522)를 거쳐 다리오 1세(Darius I)에게 전해졌으며 B.C. 486년엔 다시금 크세르크세스(Xerxes), 즉 아하수어로(Ahasuerus)에게 전해졌다. 혹자는 캄비세스 2세가 아하수어로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다리오 1세와 아하수어로는 둘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다(4:5, 6; 에 1:1). 아하수어로는 집권 후 페르시아의 오랜 숙원이었던 헬라 정복을 단행하였으나 오히려 살라미스(Salamis)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은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B.C. 464-423)로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4:7-24; 7:1-26; 느 1:1-2:10). 이후 헬라,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던 시대하에서 급속도로 국력이 쇠퇴하였던 페르시아는 A.D. 226년 사산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야 세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1세 이후의 인물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적 언급이 전혀 없다. 사산 왕조의 통치하에서 페르시아에는 미트라교(Mithraism)와 마니교(Manichaeism)가 발생하였으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동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산 왕조는 자국 내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 한편 7세기에 이르러 아라비아의 회교도들이 온 세계를 회교화하려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페르시아도 회교도들에 의해 침략을 당했으며 결국 이슬람 제국의 일원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1925년에 레자 샤 팔레비가 왕좌에 오른 후부터는 이란에 '민족주의' 성향이 대두되었으며 1979년에는 이른바 '회교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 왕이 축출되고 회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고 '이란 회교 공화국'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문화

페르시아의 예술과 문학, 그리고 과학은 유럽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천문학, 건축, 조각술 등이 있다. 한편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의 성문집(聖文集)인 아베스타(Avesta)는 외경서와 같은 후기 유대교의 제반 문헌들에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